

논문작성법

논문양식연구위원회 편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21년 개정증보2판 서문

본 논문작성법은 인터넷과 SNS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현시대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여 본교에서 수여하는 석사와 박사 학위 논문 작성 및 본교 출판부에서 출판하는 도서 원고 작성에 관한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16년 ‘학위논문 작성지침서’를 개정 증보한 것이다. 본교에서 2022년 3월 1일 이후 입학자부터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하는 논문은 이 개정 지침서를 적용하되, 그 이전 대상자들에게는 신구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단,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과 지침을 제정하여 적용한다.)

2021년 6월 1일

논문양식연구위원회

위원장	허준 교수
책임집필자	기민석 교수
위원	김기영 교수
위원	권영주 교수
위원	권지성 교수
위원	박진성 교수

본 출판사의 사전 허가 없이는 본 자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사용할 수 없음.

2016년 개정증보판 서문

본 학위논문 작성지침서는 우리 학교 소정의 학위논문 관련 규정을 토대로 하여 우리 학교에서 수여하는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 작성에 관한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한 2005년 ‘학위논문 작성지침서’를 개정한 것이다. 단,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과 지침을 제정하여 적용한다. 우리 학교에서 2017년 3월 1일 이후에 수여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하는 논문들부터는 이 개정 지침서의 적용을 받는다.

2016년 11월 10일

논문양식연구위원회

위원장	이명희 교수
책임집필자	김용복 교수
위원	권선중 교수
위원	김병권 교수
위원	오인근 교수
위원	이춘자 교수

판권소유 © 2016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본 출판사의 사전 허가 없이는 본 자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사용할 수 없음.

개정판 서문

이 논문작성법은 우리 학교 소정의 학위논문 관련 규정을 토대로 하여 우리 학교에서 수여하는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 작성에 관한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한 2000년 ‘학위논문 작성지침서’를 개정한 것이다. 우리 학교에서 2005년 9월 1일 이후에 수여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하는 논문은 이 개정 지침서의 적용을 받는다. 단,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과 지침을 제정하여 적용한다.

2005년 9월 1일

논문양식연구위원회

위원장	김승진 교수
책임집필자	김용복 교수
위원	강만희 교수
위원	김병권 교수
위원	노은석 교수
위원	배국원 교수
위원	조학래 교수
감수위원	김광수 교수
감수위원	장동수 교수

© 2005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본 출판사의 사전 허가 없이는 본 자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사용할 수 없음.

서 문

본 학위논문 작성지침서는 우리 학교 소정의 학위논문 관련 규정을 토대로 하여 우리 학교에서 수여하는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 작성에 관한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단, 목회학 박사 학위 논문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과 지침을 제정하여 적용한다. 우리 학교에서 2001년 2월 1일 이후에 수여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하는 논문들부터는 이 지침서의 적용을 받는다. 본 지침서는 우리 학교 학위논문의 종이 규격인 185mm×252mm의 크기로 만들어졌으며, 여백과 행간, 글자 모양과 크기 등의 주요 사항들을 본 지침서의 규정을 따라 작성하여, 실제 학위논문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0년 9월 1일

논 문 양 식 연 구 위 원 회

위 원 장	도 한 호 교수
책임집필자	이 석 철 교수
위 원	피 영 민 교수
위 원	김 승 진 교수
위 원	장 동 수 교수

판권소유 © 2000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본 출판사의 사전 허가 없이는 본 자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사용할 수 없음.

목 차

1부 공통 작성지침

I. 학위논문 작성의 실제	13
1. 원고 작성의 일반 원리	13
1) 글쓰기의 세 가지 요소	14
2) 문장과 문단	14
3) 좋은 글쓰기 위한 지침	15
4) 인용 지침	16
5) 퇴고	19
6) 연구윤리 지침 준수 의무	21
2. 원고 작성의 기본규칙	21
1) 한글 전용	21
2) 줄 간격	21
3) 문단 모양	24
4) 외국인 이름	25
5) 책명	26
6) 부호와 띄어쓰기	27
7) 숫자	28
8) 페이지 숫자	29
9) 기타	31
3. 학위논문의 작성 지침	32
1) 컴퓨터와 한글 워드 프로그램의 선택	32
2) 글자의 모양과 크기	32

3) 원고 분량	33
4) 종이의 크기 및 여백	34
4. 학위논문의 구성요소	36
1) 앞부분	36
2) 본문 부분	42
3) 뒷부분	45

2부 신학계열 작성지침

I. 주 표기 방식	49
1. 각주 표기의 원칙과 설정 방법	50
1) 한글 워드 프로그램에서 각주의 모양 설정 방법	50
2) 각주 표기 원칙	50
3) 각주 표기의 방식	51
2. 대표적인 각주 사례	53
1) 단행본	54
2) 정기간행물	57
3) 미간행물	59
4) 기타 자료	60
II. 참고자료 목록 표기 방식	64
1. 기본 형식	64
1) 순서	64
2) 마침표 구분	64
3) 두 줄 이상 자료의 경우	65
2. 분류와 배열	66

1) 분류	66
2) 알파벳순	66
3. 대표적인 참고자료 목록 사례	66
1) 단행본	67
2) 정기간행물	70
3) 미간행물	71
4) 기타 자료	72

3부 사회과학계열 작성지침

I. 주 표기 방식	76
1. 각주 표기 방식	77
1) 내용 각주	77
2) 저작권 허가 각주	77
3) 연구 지원 및 기타사항 각주	78
2. 본문 안에 인용 자료를 표기하는 방식	79
1) 참고한 자료에 대해 본문 안에 표기할 내용	79
2) 직접 인용의 경우	79
3) 본문 안에 인용 자료를 표기하는 실제 방식	79
3. 부록 표기 방식	82
1) 부록의 구별과 인용	83
2) 부록의 내용과 제목 배열	83
4. 보충자료 표기 방식	83

II. 표와 그림	84
1. 표	85
1) 표의 구성	85
2) 표와 본문의 관계	85
3) 표 번호	86
4) 표 제목	86
5) 표제 단어	87
6) 표의 본문	87
7) 표의 주	88
8) 표의 테두리 및 내부 선	89
9) 표의 크기 및 인용	89
10) 표에 관한 검토 사항	90
2. 그림	91
1) 그림의 종류	91
2) 그림의 준비	93
3) 그림 만들기	93
4) 그림 사용을 위한 검토 사항	95
III. 참고자료 목록 표기 방식	96
1. 기본형식	96
1) 순서	97
2) 약자	98
3) 아라비아 숫자	98
4) 두 줄 이상인 자료	98
2. 참고자료 목록의 구성요소	99
1) 저자 및 편집자 정보	99

2) 출판일	101
3) 제목	101
4) 출판정보	101
5) 디지털 출처 및 검색 정보	103
3. 대표적인 참고자료 목록 사례	103
1) 단행본	104
2) 정기간행물	104
3) 미간행물	105
4) 기타 자료	106

4부 부록

<부록 1> 학위논문 제목표지의 예 A	110
<부록 2> 학위논문 제목표지의 예 B	111
<부록 3> 학위논문 속표지의 예 A	112
<부록 4> 학위논문 속표지의 예 B	113
<부록 5> 학위논문 인준서의 예	114
<부록 6> 연구계획서 제목표지의 예	115
<부록 7> 목차 페이지의 예	116
<부록 8> 사변적 방법에 의한 논문의 장별 구성의 예	117
<부록 9> 실증적 방법에 의한 논문의 장별 구성의 예 A	118
<부록 10> 실증적 방법에 의한 논문의 장별 구성의 예 B	119
<부록 11> 참고자료 목록의 예	120
<부록 12> 신학계열 자료별 각주 및 참고자료 목록 대조표	126
<부록 13> 침례신학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136

1부 공통 작성지침

1부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각종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쓰는 논문에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신학계열 학생과 사회과학계열 학생 모두가 잘 기억하고 익혀야 할 내용이다.

1. 학위논문 작성의 실제

연구계획서가 위원회로부터 인준을 받으면, 연구자는 학위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이 장에서는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데 실제로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1. 원고작성의 일반 원리

좋은 글은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논문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는 행위는 독자에게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는 일과 같다. 따라서 논문을 쓸 때는 설득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을 고려하여 설득력 있게 글을 쓰기 위한 일반 원리 몇 가지를 제시한다.

1) 글쓰기의 세 가지 요소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동원할 수 있는 지적 자원이 필요하다. 이는 건축에서 건축 자재와 같은 것인데, 대개 독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둘째, 정확하고 효율적인 표현 능력이 필요하다. 이는 목수의 능력과 같은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문장 구사, 적절한 단어 사용, 맞춤법과 구두점의 올바른 사용, 논리적 연결과 일관성, 적절한 문체와 수사의 사용 등이 요구된다. 셋째, 글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는 건축의 설계도와 같은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논리력이 요청된다.

2) 문장과 문단

(1) 짧고 간결한 문장 쓰기

글은 간결하고 평이해야 한다. 가능하면 문장의 길이는 짧아야 한다. 학술 논문에서 감상적 표현은 금물이다. 말을 반복하거나 불필요한 부언은 피한다. 현학적인 표현이나 불필요하게 외래어를 남용하는 것도 좋지 않다. 아무리 좋은 논문이라도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우면 잘 쓴 논문이 될 수 없다.

(2) 문단의 의미

문단은 통일된 이야기(대주제)를 전개하기 위해 소주제로 토막을 낸 글의 단위다. 따라서 문단은 하나의 주제문과 그것을 구체화시켜 설명하는 여러 문장들로 구성된다. 문단을 잘 묶을 수 있는 사람은 논문도 잘 묶을 수 있다. 논문은 여러 개의 문단이 모여서 된

것이고, 문단은 여러 개의 문장이 모여서 된 것이며, 문장은 여러 개의 단어가 모여서 된 것이다. 따라서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문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논문의 언어적 구조	단어 → 문장 → 문단 → 장(章) → 논문
---------------	--------------------------

(3) 문단 구성과 전개에서 유의할 점

문단을 구성할 때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문단은 반드시 한 가지 중심 개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원칙도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문단을 끊는 것도 문제지만, 끝도 없이 이어지며 여러 가지 개념을 섞어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논리성과 연결성이 있어야 한다. 문단 안에 있는 문장들 사이의 논리적 연결성뿐 아니라, 문단과 문단 사이의 논리적 연결성도 필요하다. 문단과 문단 사이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결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문장 혹은 문단의 연결을 부드럽게 해주는 연결사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시공간(그 후, 이윽고, 연이어, 다음으로, 최근에, 끝으로, 이 시점에서), 목적(이를 위하여), 인과(그 결과, 그 때문에, 왜냐하면, 그러므로, 따라서), 비교와 대조(마찬가지로, 반대로, 그룹에도, 그러나, 한편, 동시에), 첨가와 열거(그밖에, 첫째로, 둘째로, 그뿐 아니라, 나아가서), 예증(예를 들면, 예컨대, 이를테면), 요약(즉, 요약하면, 약술하면, 달리 말하면).

3) 좋은 글을 쓰기 위한 지침

문장을 바로 쓰기 위해서는 한글 맞춤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어사전을 가까이 놓고 애매하거나 모르는 단어는 부지런히

찾아보면서 글을 쓰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 좋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한 기본 지침 네 가지를 아래에 제시한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한글 맞춤법 교재로 공부할 것을 권한다.

(1) 쓰려는 내용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정보가 결여되었을 때는 모호한 글이 나온다.

(2) 글의 주제와 논지가 분명해야 한다. 논지는 논문에서 전체 요점이 되며, 논문의 방향을 제시하는 안내판과 같다. 일반적인 글에서는 글의 앞부분에, 논문에서는 서론에 논지가 나온다.

(3) 글의 내용과 표현에서 창의성과 신선함이 있어야 한다. 같은 말과 표현을 거듭해서 쓰는 것은 좋지 않다.

(4) 주어와 술어의 관계를 분명히 한다. 이는 글을 쓰면서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 가운데 하나다.

4) 인용 지침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입증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인용하게 된다. 인용하는 방식에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는데, 각각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직접 인용

직접 인용은 원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 한해서 절제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직접 인용 방법에는 같은 줄 인용과 줄 바뀐 인용이 있다.

i) 같은 줄 인용: 직접 인용하는 부분의 길이가 네 줄이 넘지 않으면 본문에서 줄을 바꾸지 않고 이어서 쓰는데 이것을 ‘같은 줄 인용’(run-in quotations)이라고 한다. 이때는 인용부호를 반드시 붙여야 한다. 이때 인용하는 부분을 연구자가 서술하는 문장 속에 포함해서 쓸 수도 있고, 문장을 끝맺고 그다음에 이어서 인용문을 쓸 수도 있다. 연구자가 서술을 끝맺은 후에 직접 인용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등의 표현을 한 후에 세미콜론(, colon)을 붙인다.

예) 데일 무디는 과거의 전통적인 해석을 버리고, 과학적 인간론과 제휴한 새로운 접근으로 죄의 기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죄의 기원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다.... 과거에는 그 기원이 연대기적으로 이해되었지만, 이제는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신학적으로 접근되고 해결돼야 한다.”¹⁾

직접 인용문에서 각주 번호는 대개 인용한 문장 끝에 붙인다. 단, 인용 부분이 연구자가 서술하는 문장 속에 있을 경우, 필요하면 각주 번호를 인용부호(“ ”) 바로 다음에 붙일 수도 있다.

ii) 줄 바꾼 인용: 직접 인용문의 길이가 네 줄이 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줄을 바꾸고 다섯 칸씩을 들여 쓴 1행간의 분리된 덩어리가 되게 인용하는데, 이것을 ‘줄 바꾼 인용’(set-off quotations) 또는 ‘블록 인용’(block quotations)이라고 한다. 이 경우는 인용문의 시작과 끝에 인용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줄 바꾼 인용문 자체가 하나

1) Dale Moody, “Tabletalk on Theology Tomorrow,” *Review and Expositor* 64 (Summer 1967): 345-47.

의 새로운 문단의 시작인 경우에는 두 칸을 더 들여 써서 여덟째 칸부터 시작한다.

예) 에릭슨은 조건적 통일체론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했다:

인간은 하나의 통일체로 간주되어야 한다. 인간의 영적 조건이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조건과 무관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하나의 복합적 존재다. 인간의 본성이 하나의 단일한 원리로 환원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 본성의 다른 국면들은 모두 존중되어야 한다... 종교적 성장이나 성숙은 인간 본성의 한 부분을 다른 부분에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전인(the whole of what we are)을 새롭게 하신다. 인간의 본성은 죽음과 부활 사이에 인격적이고 의식적인 존재로 남는다는 성서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²⁾

iii) 인용문과 부호: 모든 직접 인용문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마침표 세 개로 이루어진 줄임표(...)로 표시한다. 또한, 줄임표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문장이 종료된 경우에는 마침표를 붙이고 나서 줄임표를 넣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총 네 개의 마침표들이 연속해서 들어가게 된다. 줄임표를 사용할 때는 줄임표의 앞 단어와는 붙여 쓰고, 뒤 단어와는 한 칸을 띄어 쓴다.

직접 인용문에서 쉼표(.)나 마침표(.)는 인용부호를 닫기 전에 쓴다. 만일 직접 인용을 할 때 이미 원문 상에 큰따옴표(“ ”)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작은따옴표(‘ ’)로 바꾸며, 인용 문장이 문장 가운데 있을 때는 인용된 문장의 마침표를 생략한다.

예) “그는 ‘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 Millard J. Erickson, *Christian Theology*, II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4), 539.

iv) 오류 원문 인용: 어떤 내용을 인용할 때 그 원문상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 원문을 그대로 옮기고 바로 이어서 묶음괄호([]) 안에 올바른 내용을 가필한다. 그러나 인용하고자 하는 내용 중 오류가 있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고자 할 때는 [sic]을 넣는다.

예1 “그는 1966년[1965년]에 태어났다.”

예2 “그는 1966년[sic]에 태어났다.”

(2) 간접 인용

간접 인용은 원자료의 표현보다는 그것의 사상이나 아이디어를 참고하여 인용할 때 사용한다.

i) 주 번호 위치: 간접 인용은 대체로 참고한 내용의 문장이나 문단 바로 뒤에 주(註)를 표시한다.

ii) 동일 자료의 두 문단 연속 인용: 동일한 자료에서 간접 인용된 부분이 논문에서 두 문단 이상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두 문단 이상을 연속하여 간접 인용한 경우에는 문단마다 모두 주를 달아야 한다.

5) 퇴고

“문장은 고치면 고칠수록 아름다워진다”라는 말이 있다. 퇴고(推敲)는 “글을 지을 때 여러 번 생각하여 고치고 다듬는 일”이다. 퇴고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정하는 일이다.

(1) 교정의 의미와 순서

교정은 논문의 초고를 완성한 후 잘못된 글자나 표현을 바로잡는 작업을 의미한다. 교정하는 순서는 글을 작성하는 순서와 정반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글은 단어 → 문장 → 문단 → 전체 논문의 순서로 진행되지만, 교정은 그 반대로 전체 논문 → 문단 → 문장 → 단어의 순으로 점검된다. 대체로 교정 작업에서는 삭제, 보완, 재구성의 세 가지 활동이 일어난다.

(2) 교정의 방법과 절차

교정을 볼 때는 대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점검해야 한다. 첫째, 목적에 알맞게 전개되었나? 통일성, 일관성, 서론과 결론의 호응 여부 등을 살핀다. 둘째, 문장의 흐름은 자연스러운가? 서론의 신선함, 단락 나누기의 적절함, 끝맺음의 깔끔함, 문체의 자연스러움, 가독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셋째, 필요한 내용이 다 들어갔나? 중요한 내용의 누락 여부, 충분한 근거 제시, 제목이나 부제의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넷째, 알기 어려운 대목은 없나? 주어와 술어의 관계, 문장의 모호성 여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의 유무, 적절한 단어 사용 여부를 살핀다. 다섯째, 논문 형식에 알맞게 되었나? 인용방법, 각주의 정확성, 도표나 그림의 적절한 사용 등을 확인한다.

어떤 연구자도 단 한 번의 논문 작성으로 연구 논문을 완성하지는 못한다. 처음에 작성된 논문은 여러 단계의 검토와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평가를 거치면서 완성도가 향상된다. 연구자는 자기 논문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정의 수고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좋다.

6) 연구윤리 지침 준수 의무

논문을 작성하면서 연구자는 반드시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연구윤리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운동선수가 경기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과 같다. 운동선수가 비록 경기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경기 규칙을 어겼음이 드러났을 경우 그 선수는 실격패를 당하듯이, 연구자가 아무리 뛰어난 논문을 썼다 하더라도 연구윤리 지침을 어긴 것이 밝혀졌을 경우- 비록 그 논문이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그 논문은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학에서 논문을 쓰는 연구자는 <부록 13>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을 잘 이해하고 지켜야 한다.

2. 원고 작성의 기본규칙

여기에 제시된 규칙은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기본규칙이다. 이 기본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내용상으로 아무리 좋은 학위논문이라 하더라도 위원회의 인준을 받을 수 없다.

1) 한글 전용

학위논문은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자나 다른 외국어를 괄호 안에 병기할 수 있다[예 정의(定議)와 정의(正義),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2) 줄 간격

(1) 줄 간격 정의

10포인트의 글자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한 줄에 바로 붙여서 다음 줄을 썼을 때 윗줄의 시작 부분과 아랫줄의 시작 부분 사이의

간격을 ‘기준 줄 간격’ 또는 ‘1행간’(single space)이라고 한다.

(2) 줄 간격 기준

우리 학교에서는 이 기준 행간을 한글 워드 프로그램의 줄 간격 설정 115퍼센트에 해당하는 간격으로 한다. 따라서 2행간(double space)은 230퍼센트가 된다. 이러한 기준의 줄 간격으로 문서를 작성하면 1행간의 경우에 윗줄과 아랫줄 사이의 실제 틈 간격은 1mm가 되고 2행간의 경우에는 그것이 5mm가 된다.

(3) 줄 간격 확인 방법

우리 학교 소정의 규정대로 편집용지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줄에 10포인트의 신명조 글자가 36개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줄이 한 면에 49개 들어있는지를 알아보면 된다.

(4) 1행간으로 작성해야 할 내용

우리 학교의 양식대로 학위논문을 쓸 때 ① 블록 인용문의 경우, ② 두 줄 이상을 차지하는 각주, 참고자료, 제목, 예시자료, 표 제목의 경우에 한해서 1행간으로 작성한다.

(5) 3행간으로 작성해야 할 내용

우리 학교의 양식대로 논문을 쓸 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내용에서는 3행간(triple space)으로 작성한다: ① 학위논문의 주요 구성 요소가 시작되는 곳(예: 서론, 각 장의 시작, 참고자료 등)의 제목과 그 밑의 첫째 줄 사이, ② 모든 소제목과 그 직전의 본문 마지막 줄 사이(단, 소제목과 그 밑의 본문 첫째 줄 사이의 간격은 보통의 본문 안의 간격처럼 2행간이다. 소제목이 두 개 이상 연속하

여 열거되는 경우에도 2행간을 유지한다), ③ 줄 바꿈 인용문의 앞 뒤 본문과의 사이, ④ 예시자료나 도표의 위와 아래 본문 사이.

(6) 2행간으로 작성해야 할 내용

위에서 제시한 1행간 및 3행간 적용 내용을 제외한 모든 내용은 2행간 즉, 한글 워드 프로그램의 줄 간격이 230퍼센트에 해당하는 간격이 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논문 전체를 놓고 볼 때 본문 내용은 주로 2행간이 사용되며 줄 정렬은 양쪽 정렬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글 워드 프로그램에서 기본 행간을 “서식”(J) 메뉴 내의 “문단 모양”(M)/(Alt+T)을 클릭한 후 나오는 “기본” 항목에서 “줄 간격”을 230%로 설정해 놓고 쓰면 편리하다(<그림 1> 참조).



<그림 1 > 줄 간격 설정

(7) 행간에 대한 규정은 본문이나, 각주, 그리고 참고자료 목록 등 학위논문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면, 본문에서 1행간으로 되어 있는 간격의 크기와, 각주나 참고자료에서 적용된 1행간의 실제 간격은 일치해야 한다.

3) 문단 모양

(1) 시작 여백

한 문단의 시작은 한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여백을 두고 들여 써야 하는데, 이것은 자판의 사이띄개(space bar)를 두 번 치는 것에 해당하는 여백이다. 한글 워드 프로그램에서 “서식”을 클릭하여 들어간 후, “문단 모양”의 “기본”에서 “들여쓰기 10”을 설정해 두면 매번 사이띄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2) 문단 정렬방식

논문의 모든 문단은 좌우 모두가 정렬(justification)되어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글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문장에 속해 있는 단어를 적절히 분절하거나 문장의 길이를 조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글자 사이의 간격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꼭 필요할 경우에는 자간이나 장평을 조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한글 워드 프로그램에서 “서식”(J) 메뉴를 클릭하여 “글자모양”(L)/(Alt+L)에 들어가서 “장평” 비율을 조정하여 사용하면 된다(<그림 2> 참조).



<그림 2> 장평비율 조정

4) 외국인 이름

(1) 표기 방법

서양인 이름은 아래에 제시된 두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나, 한 논문 안에서는 그 방식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단, 논문 제목(목차의 소제목 포함)에 포함된 서양인의 이름은 원어로만 표기해야 한다.

첫째 방식은 한글 전용 원칙에 따라 처음 등장하는 서양인의 이름을 먼저 한글 발음으로 표기한 뒤 괄호 안에 원어 이름 전체(full name)를 넣어준다. 두 번째부터는 한글로 성(family name)만 표기한다. 둘째 방식은 서양인 이름을 처음에는 원어 이름 전체를 쓴 후, 두

번째부터는 원어로 성만 표기하는 방식이다.

같은 성을 가진 두 명 이상의 인물이 논문에 포함될 경우에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부터는 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이름을 약자로 표기하고 성을 쓴다(예 J. S. Bach, C. P. E. Bach).

(2) 서양인 이름의 약자 표기

서양인 이름의 경우, 약자(略字)로 표기할 수 있다. 이때는 약자 표기 다음에 마침표(.)를 찍고 그다음에 한 칸을 띄어 쓴다(예 F. F. Bruce). 그밖에 연도와 월, 일을 표기할 때도 약자로 표기할 수 있는데, 이때도 마침표 다음에 한 칸을 띄어 쓴다(예 2021. 7. 15.).

그러나 서양 학위명의 약자나 도시명의 약자, 그리고 관례적으로 한 단어로 사용되는 약자의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마침표를 찍는다(예 M.Div., Th.M., D.Min., Ph.D., N.Y., no., e.g., p.m. 등).

(3) 동양인 이름

동양인의 이름도 위에서 설명한 서양인의 경우처럼 두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첫째 방식은 한글 발음으로 먼저 표기한 뒤 괄호 안에 원어 이름 전체를 넣어준다. 둘째 방식은 처음부터 한글 발음을 표기하지 않고 원어 이름 전체를 표기한다. 다만, 동양인의 경우는 두 번째부터 성(姓)만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5) 책명

(1) 책명 부호

책명을 표기할 때 동양서인 경우, 진한 글씨체로 표기하면 된다. 영어를 포함하여 로마문자로 표기된 책명은 모두 이탤릭체로 표기

한다(서적, 팸플릿, 학술지문 등).

(2) 음악 작품 중에서 악곡명

이 경우는 진한 글씨체로 표기하되, 외국 작품은 번역된 제목을 진한 글씨체로 표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원제목을 괄호 안에 넣어 병기한다. 예를 들면, “오페라 **마직**”(The Magic Flute)과 같이 표기한다. 오페라, 오라토리오 및 칸타타의 아리아나 레시타티브의 경우에는 그것을 인용부호 안에 쓰고 이어서 원제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를 들면, “오페라 **토스카** 중 아리아,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Vissi d'arte vissi d'amore)에 따르면...”과 같이 표기한다.

(3) 번역서의 경우

본문 중에서 외국자료를 언급할 때에는 번역된 제목을 쓰되, 원 제목을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괄호 안에 보통의 글자체로 나타낸다(예 “토베트(Torbet)의 **침례교회사**(History of the Baptists)에 의하면...”). 그러나 각주나 참고자료 목록에서는 원제목을 쓰지 않고 번역된 제목만 표기한다.

6) 부호와 띄어쓰기

(1) 한 문장을 끝맺는 마침표 다음에는 한 칸을 띄어 쓴다(예)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2) 세미콜론(:)과 쌍반점(;)의 경우에는 한 칸을 띄어 쓰고 나서 그 다음 글자를 쓴다. 단 성경 구절이나 시간을 표시하는 세미콜론의 경우에는 띄어 쓰지 않는다(예 마 6:33; 4:30 p.m.).

(3) 각주와 참고자료 목록에 포함되는 괄호는 하나의 구별되는 요소로 간주하여, 앞부분의 요소로부터 한 칸을 띄어 사용한다.

(4) 새로운 장(章)이 시작되는 곳에서도 다른 면보다 상단 여백을 더 많이 두고 시작하지 않고 맨 위 첫째 줄부터 쓰기 시작한다.

(5) 인용부호의 모양은 원칙적으로 한글자판에 있는 것(“ ” 또는 ‘ ’)을 사용하되, 영어를 표기할 때는 영문자판에 있는 모양(" " 또는 ' ')도 사용할 수 있다.

(6) 참고자료 목록에서 번역서와 원서는 분류 제목이 될 수 없고, 부호나 번호를 붙여서도 안 되며, 다만 바로 위의 자료에서부터 3행간을 벌리고 게재한다.

(7) 표나 그림을 표시할 때는 가랑이표 (< >) 부호를 사용한다. 표 이름은 표의 상단 좌측에 붙이고, 그림 이름은 하단 중앙에 붙인다(예 <표 1>, <그림 1>).

7) 숫자

(1) 기수(基數)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할 수 있지만, 서수(序數)는 한글 표기로만 한다(예 그가 교실에 들어갈 때 학생이 4명 있었다. 그러니까 그는 다섯 번째로 교실에 들어간 것이다).

(2) 일정 구간의 모든 숫자를 포함하는 연속적 범위를 나타내는 숫자(continued numbers)를 표시할 때 두 번째의 숫자는 첫 번째의 숫자에서 바뀐 십 단위 이하만을 표시한다(예 600-13, 102-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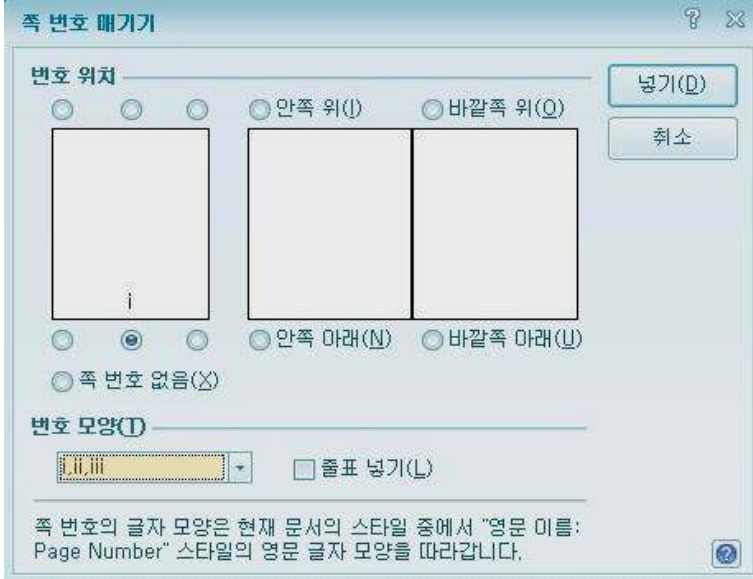
71-72, 505-17, 13729-803). 단, 연도, 월, 일자, 성경구절, 악보상의 마디를 표시할 때는 모두 밝혀 적는다(예 1916-1998년; 5월 23-26일; 제12-19마디).

8) 페이지 숫자

(1) 본문 부분의 첫 페이지(주로 ‘서론’)부터 아라비아 숫자 1로 시작하여 차례로 붙여나가되, 모든 페이지 숫자는 좌우에 아무런 장식 없이 각 면의 하단 중앙에 위치시키며, 페이지 숫자와 하단 끝의 여백이 2.5cm가 되어야 한다.

(2) 논문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모든 요소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로마 소문자를 사용하여 페이지 숫자를 표시하되(예 i, ii, iii, iv 등), 속표지를 첫 페이지로 삼고 계산하여 붙인다. 단, 속표지와 인준서에는 페이지 표기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나오는 요소(‘감사의 글’이나 ‘목차’)부터 ‘iii’이라고 표시하며 시작한다.

한글워드 프로그램에서는 “쪽(W)”에서 “쪽 번호 매기기(G)/(Ctrl+N, P)” 창을 열어, “번호” 중 아래쪽 중앙을 선택하고 번호 숫자는 소문자 로마 숫자(i, ii, iii)를 선택한다. 이 때 “줄표 넣기”는 선택하지 않는다(<그림 4> 참조).



<그림 4> 논문 앞부분 쪽 번호 설정

(3) 논문의 앞부분에 적용했던 로마 소문자 페이지 번호에서 본문 첫 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아라비아 숫자 페이지 번호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첫째, 로마숫자로 페이지를 매긴 마지막 페이지의 끝줄에 커서를 둔다. 둘째, “쪽(W)”에서 “구역 나누기” 창을 선택한다. 셋째, 아라비아 숫자로 페이지 표기를 해야 하는 페이지의 맨 앞에 커서를 두고 다시 “쪽(W)”에서 “쪽 번호 매기기(G)/(Ctrl+N, P)” 창을 열어, “번호” 중 아래쪽 중앙을 선택하고 번호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1, 2, 3)를 선택한다. 넷째, 다시 “쪽(W)”에서 “새 번호로 시작(W)” 창을 열고, “번호 종류” 중 “쪽 번호(P)”를 선택한 후, “시작 번호(S)”에 1을 적어 넣는

다(<그림 5> 참조).



<그림 5> 아라비아 숫자 새쪽 번호 설정

9) 기타

(1) ‘감사의 글’이나 부록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칭이나 경어를 쓰지 않는다.

(2) 논문 집필자 자신을 가리키는 말은 ‘연구자’로 하되, 이러한 표현은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3) 시제는 논문작성에서 현재형과 과거형을 쓰고, 미래형은 연구계획서나 가설을 제기할 때 주로 사용한다.

(4) ‘가장’ 또는 ‘매우’ 등과 같은 말은 절제하여 사용하며, 이성적 사고와 판단이 아닌 감정에 호소하는 투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5) 서양 책명을 원어로 표기할 때는 전치사와 관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3. 학위논문의 작성지침

학위논문을 우리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에서 정한 학위논문의 주요 형식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 형식에 맞춰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논문 작성자는 아래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1) 컴퓨터와 한글 워드 프로그램의 선택

(1) 학위논문은 컴퓨터(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2) 문서작업을 하기 위한 워드 프로세서 소프트웨어로서는 여러 가지가 사용될 수 있는데, 학위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한글 워드 프로그램 2007판 이상을 사용한다.

2) 글자의 모양과 크기: 신명조 10포인트

(1) 학위논문은 본문뿐 아니라, 모든 요소의 제목이나 소제목들, 그리고 각주의 글자나 참고자료 항목의 글자도 모두 신명조로 하고, 글자의 크기는 10포인트로 한다. 만일 각주의 글자 크기가 10포인트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클릭해서 들어가 재설정할 수 있다. “서식(J)” → “스타일(S)” → “스타일 목록(M)” 아래 열거된 항목 중 “각주”를 클릭 → 그 밑에 열거된 아이콘 중 두 번째 아이콘(“스타일 편집하기”)을 클릭 → “스타일 편집하기” 창에서 “글자 모양”을 클릭 → “글자 모양” 창에서 기준 크기를 10 포인트로, 글꼴을 신명조로 선택한 후, “설정”을 누른다 (<그림 6> 참조).

(2) 제목표지와 속표지 그리고 인준서의 글자들은 소정의 양식에

따라 더 큰 글자를 사용해야 하지만 글자체는 신명조를 유지한다.

(3) 제목표지, 속표지 및 인준서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진한 글자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림 6> 각주 서체 크기 및 글꼴 선택

3) 원고 분량

제본된 논문의 본문(논문 앞부분과 참고자료 목록은 제외) 분량은 목회신학대학원, 신학대학원, 상담복지대학원, 교회음악대학원의 석사과정은 50페이지 이상, 일반대학원과 선교대학원 석사과정은 70페이지 이상이 되어야 한다. 박사과정 학생은 일반대학원 신학 전공의 경우 250페이지 이상을, 상담임상 전공의 경우 100페이지 이상을, 목회신학대학원의 경우 200페이지 이상을 작성해야 한다.

분류	전공	논문의 본문 분량
석사 과정	목회신학대학원 신학대학원 상담복지대학원 교회음악대학원	50페이지 이상
	일반대학원 선교대학원	70페이지 이상
박사 과정	일반대학원(신학 전공)	250페이지 이상
	일반대학원(상담, 임상)	100페이지 이상
	목회신학대학원	200페이지 이상

4) 종이의 크기 및 여백

(1) 종이 크기

학위논문의 종이 크기 규격은 185mm × 252mm이고, 하드커버로 제본한 표지의 크기는 190mm × 260mm이다.

(2) 본문 규격 맞추기

각주를 포함한 본문 내용이 차지하는 크기(페이지 숫자는 제외)는 130mm × 197mm이다. 이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편집용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설정하여 작성한 후 A4용지에 출력하여 규격에 맞게 재단해야 한다. 즉, 쪽(W) → 편집용지(J) → 기본 → 편집용지에 들어가 “용지 종류”를 ‘사용자 정의’로 선택하여, 폭 185.1mm, 길이 252.1mm로 입력한 후, 왼쪽 여백은 30mm, 그리고 나머지 여백은 모두 25mm로 입력하고, 머리말, 꼬리말, 그리고 제본을 모두 0mm로 입력하여 설정한다(<그림 7> 참조)



<그림 7> 편집 용지 설정

(3) 제목표지, 속표지, 인준서 작성

제목 표지, 속표지, 인준서 등을 작성할 때는 별도의 파일로 작성하되, 위의 편집용지 설정에서 모든 규격은 그대로 두고 아래쪽 여백만 20mm로 바꾸어 준다. 그리고 행간은 230퍼센트로 하고 글자는 14포인트의 진한 글씨로 지정해 놓고 일단 각각의 양식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입력한다(<부록 1>부터 <부록 5> 참조). 이때 부록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각 부분 사이의 간격을 맞춘 다음, 각 부분에 대한 글자 크기와 행간을 조정한다.

그리고 이 표지들은 규격에 맞추어 작성해 놓은 파일을 우리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으므로, 필요하다면 내려받아서 각 부분을 자신의 논문에 관한 내용으로 바꾸어도 된다.

(4) 논문 제목의 크기와 위치

논문 제목이 두 줄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부록 1>에서 제목을 두 줄 혹은 그 이상으로 입력한 후에 제출 일자의 위치가 처음의 위치에 오도록 조정한다. 즉, 논문 제목과 제출 일자 사이의 줄 수를 한두 개 없앤 후, 제출 일자와 그 위의 줄 사이의 행간을 적절히 조정한다.

4. 학위논문의 구성요소

학위취득을 위해 쓰는 모든 논문은 아래의 요소들을 갖추어야 한다. 모든 구성요소는 아래의 순서대로 작성되어야 한다. 단, 별표 (*) 표시가 되어 있는 요소는 논문의 성격과 필요에 따라 취사 선택할 수 있다.

1) 앞부분

(1) 제목표지

제목표지는 하드커버 제본을 할 때 겉표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학교 소정의 양식과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부록 1>은 논문의 제목이 두 줄을 차지하는 경우이고, <부록 2>는 제목이 한 줄 안에 들어가는 경우이다.

(2) 공백 간지

공백 간지는 제목표지에 그 뒷면이 비쳐 보이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제목표지를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이 면을 저작권을 표시하는 면으로 활용할 수 있

는데, 그 형식은 다음의 예와 같은 사항을 아래쪽 중앙 밑에서부터 3cm의 위치에 표시한다.

© 2017 안창호

(3) 속표지

속표지는 제목표지의 내용에 지도 교수명을 추가한 것으로서, 논문을 하드커버로 제본했을 때 안에 들어가는 제목표지로서, 우리 학교 소정의 양식과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한다(<부록 3>, <부록 4> 참조). 논문의 앞부분 페이지 번호는 이 속표지를 첫 페이지로 간주하여 매기되, 속표지와 인준서 페이지에는 페이지 번호를 표기하지 않는다.

(4) 인준서

인준서 페이지는 우리 학교 소정의 양식과 일치하도록 하되, 심사위원 이름난은 공란으로 남겨두지 말고 직접 입력해 넣는다(<부록 5> 참조).

(5) 감사의 글*

감사의 글은 본문에서 각 장을 시작하는 형식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한다.

(6) 목차

‘목차’라는 제목은 상단 중앙 첫째 줄에 오게 하고, 목차 내용의 처음 소제목은 3행간 띄고 시작하며, 그 이하 각 소제목 사이는 모두 2행간을 뒀다. 단, 한 줄이 넘어가는 항목은 1행간으로 그 소제목이 끝날 때까지 쓴다. 목차의 소제목들은 논문의 앞부분 중에서

페이지 숫자가 처음 부여된 요소부터 차례로 열거한다. 목차의 각 소제목과 해당 페이지 숫자 사이에는 가운뎃점(·)들을 넣는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편리하게 목차 작업을 할 수 있다. 먼저 목차를 넣을 부분 전체를 블록 처리한다. 그리고 ‘서식 메뉴(J)’를 클릭하여 ‘문단 모양(M)/(Alt+T)’에 들어가 ‘탭설정’에서 ‘탭 종류’를 ‘오른쪽(R)’으로, ‘채울 모양(F)’을 점선 모양(중간에 아이콘으로 있음)으로, ‘탭 위치(P)’를 425.0pt로 설정한 후 ‘추가(S)’를 누르고, ‘설정(D)’을 클릭한다. 그런 다음 ‘문단 모양’에서 나온 후, ‘Tab 키’를 치면 중앙 점선이 형성된다(<그림 8> 참조).



<그림 8> 목차 탭 설정

제목들은 다음과 같은 종류의 여섯 단계 범위 안에서 순서대로 사용한다. 단,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이 여섯 단계 소제목들의 상위 단계로서 장(章) 단위의 제목을 사용할 수 있다(예 제1장 복음주의 신학의 역사적 배경).

목차에는 아래의 여섯 단계 중에서 처음 두 단계까지의 제목들

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그 이하 단계의 소제목들을 목차에 포함하는 문제는 연구자 자신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단, 어느 수준까지 포함하든지,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수준의 소제목들로 일관성 있게 나타내야 한다(<부록 8 참조>).

각 소제목은 바로 위 수준의 제목 내용이 시작되는 곳에 맞추어 들여 써서 번호를 매겨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같은 수준의 소제목들끼리는 동일 수직선상에 정렬된다.

I. → 1. → 1) → (1) → i) → (i)

I.

1.

1)

(1)

i)

(i)

(ii)

ii)

(2)

2)

2.

II.

목차

감사의 글	iii
그림목차	v
표목차	v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배경	3
I. 인간론의 역사적 배경	16
1. 인간론에 대한 역사적 개관	16
1) 교부시대의 인간 이해	16
(1) Clement의 인간 이해	18
(2) Origen의 인간 이해	20
2) 종교개혁 시대의 인간 이해	22
(1) Luther의 인간 이해	23
(2) Calvin의 인간 이해	26
2. 하나님 중심의 인간론	30

(중략)

II. 초기 남침례교의 인간론	58
1. 신학적 배경	58
1) 시대 상황	59

(후략)

(7) 예시자료 목차*

예시자료 목차에는 논문 전체에 게재된 예시자료들을 일련번호에 따라 순서대로 열거한다. ‘예시자료 목차’라는 제목은 상단 첫째 줄 중앙에 쓴다. 그리고 그 아래 세 번째 줄에서부터 각 예시자료의 번호와 제목을 쓰고 이어서 한 칸씩 띄고 가운데띄점(·)들을 친 뒤에 오른쪽 끝에 각 예시자료가 게재된 페이지 숫자를 표시한다. 예시자료의 제목이 비교적 긴 경우에는 두 줄 이상으로 나누어 쓰되 1행간으로 한다. 그리고 번호를 제외한 제목 부분들이 왼쪽에서 수직 정렬이 되도록 한다. 각 예시자료 사이는 2행간으로 한다.

예시자료 목차	
1. 바울의 1차 선교여행 경로	35
2. 바울의 2차 선교여행 경로	42
(중략)	
10. 바울의 서신서와 공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급들의 비교	45

(8) 표 목차*

표 목차는 앞에서 설명한 예시자료 목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한다.

(9) 약보 목차*

약보 목차는 앞에서 설명한 예시자료 목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한다. 단 작곡자명, 작품명, 악장, 마디 수를 포함한다.

2) 본문 부분

(1) 서론

서론은 연구주제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곳이다. 여기서는 연구자가 연구한 내용의 전반적인 취지와 방향을 서술한다. 서론에는 장 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서론이 두 개 이상의 소제목들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소제목들에는 번호를 붙인다. 서론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i) 연구목적: 연구목적은 서술할 때는 연구자가 왜 이 주제의 연구를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수행했던 연구주제의 독창성과 중요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다음의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 연구 목적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첫째, 연구자가 연구했던 과제와 관련한 주요 측면들을 언급하면서 서술하되, 넓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시작하여 점점 더 좁혀가면서 구체적인 문제, 즉 연구자가 연구했던 특정한 연구주제로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연구 목적을 진술하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신이 연구했던 주제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연구주제와 논문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연결시키면서 하나의 문장으로 진술한 후에 그것을 다시 연구 과정에서 발견한 주요 쟁점별로 세분하여 ‘연구목표’의 형태로 제시해주면 독자가 논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ii)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는 것은 연구자가 연구했던 내용이 그것과 관련된 여러 선행 연구들 속에서 어떤 자리를 점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론적 배경을 잘 제시해줌으로써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가 기존 연구와 비교해볼 때 어떤 점에서 독창적인지를 학문적으로 논증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또한, 자신이 연구했던 주제와 관련한 연구사(研究史)를 이 해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iii) 연구방법: 연구방법 서술에서는 연구자가 연구주제를 어떻게 다루어 연구의 목적을 이루었는지를 언급한다. 즉, 연구자료를 선택한 기준 및 방식, 자료의 활용 및 분석 방식, 연구의 전개 방향과 관련하여 분기점에 이르렀을 때 연구자가 취한 선택의 방향 및 그것을 위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그리고 자신이 수행했던 연구의 범위나 한계를 언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상의 요소들은 반드시 서론에 포함해야 할 것들이며 그 외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용어의 정의’와 같은 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 그리고 학위논문 서론에 언급된 이 모든 요소는 연구계획서에서 이미 제시됐던 것이기에,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을 수도 있지만, 학위논문에서는 이미 연구를 수행하여 마친 상태이므로 과거 시제로 서술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계획서에서 언급했던 것을 필요에 따라 변경하여 진행하였을 경우, 연구방법을 서술하는 항목에서 그 내용과 이유를 적절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본론: 장별 구성

본론은 제기된 문제를 논의하고 전개하는 곳이다. 필요한 방식

을 동원하여 논거를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적 상관성이고, 이것은 장별 구성을 하는 데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이다. 대체로 장별 구성에는 두 가지 형식이 사용된다.

i) 사변적 구성: 장의 구성은 논문의 성격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신학이나 철학 등의 인문학 분야에 속하는 논문의 경우에는 연구과제가 내포하고 있는 주요 요소들을 몇 개로 나누어서 그 각각을 하나의 독립된 장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구주제를 몇 개의 연구목표로 구체화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맞춰 장을 구성하면 된다.

ii) 실증적 구성: 사변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자료수집을 통한 경험적 또는 실증적 연구를 해야 할 주제의 경우에는 장의 구성이 달라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문헌 고찰’이라는 장이다. 여기서는 연구주제의 주요 요소들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선행 연구자료를 깊이 있게 고찰한 후 중요한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체계화하여 서술한다. 이것은 서론에서 언급한 ‘이론적 배경’과 비슷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깊이 있고 자세하게 언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다음은 ‘연구방법 및 절차’라는 장이다. 여기서는 사용된 연구설계와 도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연구의 대상이 되는 모집단과 자료수집의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결과의 분석과 논의’라는 장이다. 여기에서는 수집된 자료들을 어떤 방법과 도구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실제로 분석한 결과들을 통계적 방법으로 제시하고 그것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하고 논의한다.

(3) 결론

결론은 본문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서론에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 답을 제시하는 곳이다. 따라서 결론에서는 새로운 의견이 언급되어서는 안 된다. 즉 본문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이 결론에 나올 수 없고, 서론에서 제기하지 않은 문제를 언급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본문의 내용을 반복해서 요약하는 것에 그쳐서도 안 된다. 본문에서 논증된 내용을 토대로 서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일반화하거나 제한된 범위 안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항들을 서술해야 한다.

또한, 연구의 결과가 시사해 주는 중요한 점들을 정리하여 서술하고, 연구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들에 대한 언급과 앞으로 필요한 연구의 방향에 대한 제안을 포함할 수 있다. 서론과 마찬가지로 결론도 장 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결론이 두 개 이상의 소제목들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소제목들에는 번호를 붙인다.

3) 뒷부분

(1) 부록

논문의 내용과 관련이 있지만, 본문 중에 삽입하기에 부적합한 자료들은 논문의 뒷부분에 부록으로 포함한다. 부록을 둘 이상 포함하고자 할 때는 일련번호를 붙여서 분류한다. 각 부록은 상단 중앙에 그것을 간단히 설명하는 제목을 붙여야 한다(예 <부록 1> 본 연구의 조사요원들을 위한 훈련 내용). 또한, 부록들은 아래의 예와 같이 논문 앞부분의 목차에도 2행간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부록 1> 학습 필요도 조사를 위한 설문지	75
<부록 2> 조사 협조 의뢰를 위한 1차 편지	76
<부록 3> 조사 협조 의뢰를 위한 2차 편지	77
<부록 4> 슈만(Robert Schumann), “아나에게”(An Anna)	79

(2) 참고자료 목록

참고자료를 열거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수가 아주 많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자료를 자모순이나 연도순으로 열거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이다. 논문의 성격상, 또는 자료의 수가 비교적 많아서, 자료들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열거해야 할 때는 구분의 기준이 되는 각 항목을 일련번호를 붙여서 먼저 열거한 후에 그 각각의 항목 밑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열거해야 한다. 예를 들면, 1. 단행본, 2. 정기간행물, 3. 미간행물, 4. 기타 자료로 구분할 수도 있고, 1. 일차 자료, 2. 이차 자료로 구분하면서 그 각각에 대하여 다시 1) 단행본, 2) 정기간행물, 3) 미간행물 4) 기타 자료로 세분할 수도 있다.

(3) 초록

초록은 논문의 전체적인 주요 사항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 주제와 연구방법, 그리고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위논문에는 영문초록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MDiv. 학위는 국문 초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초록을 작성하는 방법은 첫째 줄 중앙에 ‘초록’(Abstract)이라고 쓰고 3행간을 띄고 왼쪽 끝에서부터 ‘연구자’(Researcher), ‘학위명’(Degree), ‘학위수여 기관’(Institute), ‘학위수여일’(Date), ‘지도교수’(Chairperson) 그리고 ‘제목’(Title) 순서에 따

라 아래와 같이 1행간으로 기재한다. 그리고 3행간을 다시 띄고, 초록의 내용을 2행간으로 쓰되, 전체의 분량은 2페이지 이상 3페이지 이하가 되게 한다.

초록

연 구 자: 류관순(Ryu, Gwan-Soon)

학 위 명: 문학석사(Master of Arts)

학위수여기관: 한국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일: 2020. 12. 31.

지도교수: 홍길동, Ph.D

논문 제목: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정의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질문을 기본으로 하여 연구했다. (1)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정의적 변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대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가? (후략)

Abstract

Researcher: Seok, Jong-joon

Degree: Doctor of Philosophy

Institute: Graduate School of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Seminary

Date: December 31, 2008.

Chairperson: Bae, Kuk-won, Ph.D

Title: A Critical Analysis of the Narrative Theory of Paul Ricoeur
& Hans Frei and its Implication for Theological Method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try to get over the limitation of modern epistemology and modern theological methodologies by using the postmodern epistemology to which the narrative theory of Paul Ricoeur and Hans Frei are applied. (후략)

2부 신학계열 작성지침

우리 학교에서 논문을 쓰는 연구자는 신학계열 방식과 사회과학계열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신학계열 연구자는 1부의 공통 작성지침과 더불어, 2부의 각주와 참고문헌 표기 방식을 준수해야 한다.

1. 주 표기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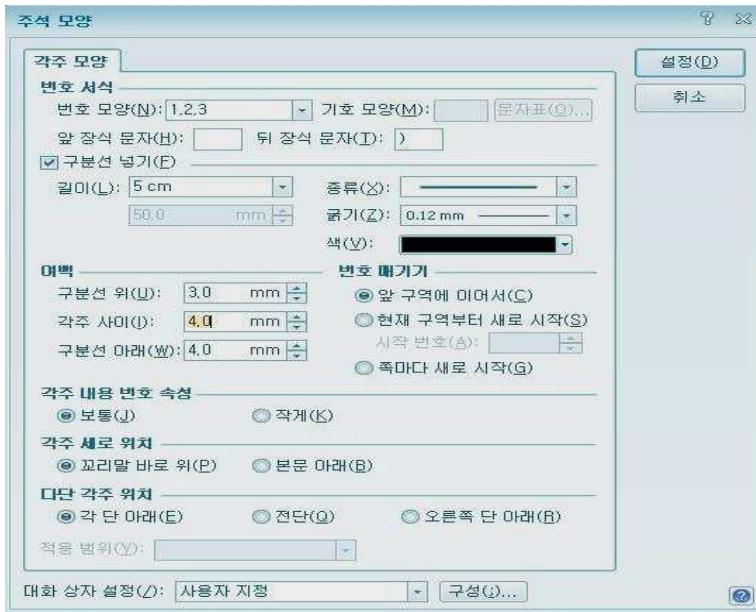
연구자가 다른 사람의 글이나 주장을 빌려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삼는 것을 인용(引證)이라고 한다. 논문에서 인용할 때는 인용한 근거를 반드시 정해진 양식에 따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표절의 의혹을 받을 수 있다.

인용한 글이나 사상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사용되는 주된 방법은 주(註)를 다는 것이다. 주에는 각주(脚註), 후주(後註), 본문주가 있는데, 우리 학교의 신학계열 학위논문에서는 각주만 인정한다. 단, 성경 구절은 각주에 넣지 않고 본문 속에 괄호를 사용하여 포함시킨다. ㉮ (막 5:10)

1. 각주 표기 원칙과 설정 방법

1) 한글 워드 프로그램에서 각주의 모양 설정 방법

입력(D) 메뉴의 주석(N) 그리고 각주(F/Ctrl+N, N) 순으로 들어가서, 번호모양은 1, 2, 3, 구분선 길이는 5cm, 구분선 위 여백은 3mm, 구분선 아래 여백은 4mm, 그리고 각주 사이는 4mm로 설정한 후 사용한다(<그림 9> 참조).



<그림 9> 각주 모양 설정

2) 각주 표기 원칙

(1) 각주의 형태

각주의 표기는 들여쓰기를 하지 않고 왼쪽 첫 칸부터 쓴다. 한 각주가 두 줄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는 1행 간격으로 연속하여 쓰되,

둘째 줄 이하도 들여 쓰지 않고 왼쪽 첫 칸부터 쓴다.

(2) 번호 모양

주(註)의 번호는 본문에서는 반괄호 안에 위첨자로 쓰고, 각주에서는 반괄호 안에 보통 글자체로 쓴다.

3) 각주 표기의 방식

(1) 순서

각주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의 네 가지 구성요소를 순서대로 기재한다. 저자명, 자료명, 출판사항(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 그 외의 정보(역자, 시리즈 이름, 증보판 등)는 아래 세부 형식을 참고하라.

(2) 각주 구분 부호

각주는 전체를 한 문장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정보와 정보 사이는 쉼표(,)로 구분하고 맨 마지막에 마침표(.)를 붙인다.

(3) 두 개 이상의 인용 자료 표기

한 각주에 두 개 이상의 인용 자료들을 표시할 때 각 자료들은 세미콜론(; semicolon)으로 구분하고 한 칸을 띄어 쓴다.¹⁾

(4) 페이지 표시

인용 자료의 페이지 숫자를 나타내는 기호인 p.나 pp. 또는 ‘쪽’

1) 우택주, **8세기 예언서 이해의 새 지평: 사회과학 비평적 읽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31; 기민석, **한국 성도들을 위한 예언서 강의** (서울: 예책, 2017), 77.

은 사용하지 않고 페이지 숫자만을 쓴다. 페이지 숫자 표기에서 십 단위는 생략하지 않으며(예.17-18) 백 단위 이상이 같을 경우 백 단위는 생략한다(예.113-14). 다만 십 단위가 0으로 표기될 경우 백 단위까지 표기한다(예. 102-107).²⁾

(5) 재인용

원 자료를 다른 자료에서 재인용할 때는 두 자료를 모두 표기하되, 원 자료와 인용한 자료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³⁾ 그러나 가능하면 원 자료를 참고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재인용을 한다.

(6) 반복인용 시 약식표기

앞에서 한 번 인용된 자료를 뒤에서 반복인용할 때는 저자명(외국인의 경우 last name), 자료명, 인용 페이지 숫자만을 기록하여 약식표기한다. 종전에 쓰던 ‘op. cit.’나 ‘loc. cit.’는 사용하지 않는다. 자료의 제목이 긴 경우, 1-3 단어로 줄여서 표기한다.⁴⁾

같은 자료가 연속으로 각주에 사용될 경우 ‘Ibid’를 사용하지 않고 반복인용 형식을 그대로 따른다.⁵⁾

(7) 판수 표시 및 출판사항

초판이 아닌 경우, 한글 자료의 경우에는 ‘2판, 3판, 수정증보판,

2) 박경희, **어찌 너를 포기하라! 호세아 신학** (대전: 도서출판 이화, 2020), 113-14; Weonjin Choi, *An Appraisal of Korean Baptist Missions in Kazakhstan, Central Asia* (Saarbrücken: VDM, 2008), 102-107.

3) 김정봉, “다윗의 조가(삼하 1:17-27)-다윗 왕정 이념의 노래,” **성경원문연구** 35 (2015): 28; 기민석, **구약의 민주주의 풍경** (서울: 홍성사, 2017), 116에서 재인용.

4) 우택주, **8세기 예언서**, 40; 김정봉, “다윗의 조가,” 29.

5) 우택주, **8세기 예언서**, 40; 김정봉, “다윗의 조가,” 30.

수정판' 등으로 원 자료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밝혀 적는다.⁶⁾ 영문 자료의 경우 '2nd ed., 3rd ed., 4th ed.' 등으로 표시한다.⁷⁾ 이 때, 판수와 인쇄수는 구분되어야 한다(예) 1판 1쇄와 1판 5쇄는 같은 판수며, 발행연도는 1쇄 때 연도를 표기한다).

저자,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중에서 어떤 사항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항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불명'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나타낸다. 영문 자료의 경우에는 'n.n.'(no name), 'n.p.'(no place, no publisher), 'n.d.'(no date)를 사용한다.⁸⁾

(8) 각주번호 이어쓰기

각주번호는 논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되는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단, 박사학위의 경우, 각 장(章)마다 새로운 번호로 시작할 수 있다.

2. 대표적인 각주 사례

학위논문의 참고자료 목록 배열에 따라 (1) 단행본 (2) 정기간행물 (3) 미간행물 (4) 기타 자료로 분류하여 각주 표기방식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6) 김선배, 신약성경 올레길, 개정판 (서울: 요단출판사, 2016), 152.

7) William H. Halverson, *A Concise Introduction to Philosophy*, 3rd ed. (New York: Random House, 1976), 200-204.

8) Isaac Bashevis Singer, *Writers at Work* (n.p.: n.p., n.d.), 32; 김채은, **사색의 길목에서** (출판지 불명: 출판사 불명, 출판연도 불명), 7; 정봉채, **한 순례자의 고백** (대구: 주바라기선교회, 출판연도 불명), 30; Mike Cook, *Crises in the Senior Years* (San Antonio: n.p., 1971), 35.

1) 단행본

(1) 1인 저자

위에서 설명한 각주 표기의 기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 1) 안희열, **바울, 교회에서 길을 찾다** (서울: 두란노서원, 2021), 115-16.
- 2) 한철흠, **주제로 읽는 요한계시록: 순교와 타협 사이에서** (서울: 영성, 2020), 78-79.
- 3) Dongsun Cho, *St. Augustine's Doctrine of Eternal Punishment: His Biblical and Theological Argument* (Lewiston: The Edwin Mellen Press, 2010), 107-108.

(2) 2인 이상의 저자

2인 저자까지는 이름을 모두 적는다. 이 때, 한국 저자의 이름과 이름 사이는 가운뎃점(·)으로 구분하고, 외국 저자의 경우 가운뎃점 대신에 ‘and’를 쓴다. 저자가 3인 이상일 때, 한국 저자의 경우 ‘OOO의 2인’ 형식으로 표기하고, 외국 저자의 경우 대표 저자명 이후 et al을 붙인다.

- 1) 김태식·오지원, **한국침례교회 100년의 향기** (서울: 누가, 2020), 128-29.
- 2) Stephen Evans and Zachary Manis, **종교철학: 기독교 신앙의 철학적 조명**, 정승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6), 302-303.
- 3) 이현모 외 5인, 와이 미션?: **하나님을 기쁘게 열방이 주를 기뻐하게** (서울: 두란노서원, 2015), 83.
- 4) Max Komatose, et al., *Ensemble Acting in the Off-Loop Theaters of Chicago* (Toledo: Wright-Smart Press, 1995), 230.

(3) 편집 혹은 번역된 책

국문 편집서의 경우 저자 이름 다음에 ‘편’ 혹은 ‘외 편’(편저자 3인 이상)을, 외국어 편집서의 경우 저자 이름 다음에 ‘ed.’ 혹은

‘eds.’(편집자 3인 이상)를 쓴다. 국문 번역서의 경우 번역자명 다음에 ‘역’(‘옮김’은 사용하지 않음)을 사용하고, 영문 번역서의 경우 trans. 다음에 번역자명을 기재한다.

- 1) 김승혜 편, **종교학의 이해: 종교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왜관: 분도출판사, 1986), 263-64.
- 2) Donald Wayne Viney and Jincheol O, eds., *Creative Experiencing: A Philosophy of Freedom* (New York: SUNY Press, 2011), 103-104.
- 3) 로버트 벅크스, **바울의 공동체 사상**, 장동수 역 (서울: IVP, 2007), 256-58.
- 4) 리언 맥베스, **침례교회의 역사와 유산**, 김용국 외 역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13), 200-202.
- 5) 데이비드 알렌, **프리칭틀스**, 임도균 외 편역 (서울: 디사이플스, 2019), 76.
- 6) Ernst Käsemann, *On Being a Disciple of the Crucified Nazarene*, trans. Roy A. Harrisville (Grand Rapids: Eerdmans, 2010), 102-108.

(4) 편집된 책의 일부

편집된 책의 일부인 글이나 논문을 인용할 경우 아래의 형식을 따른다.

- 1) 김종걸, “동성애와 대중문화: 동성애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어떠한가?” **동성애 성경에서 답을 찾다**.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편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20), 242.
- 2) 양병모, “목회자의 소명,” **복음주의 목회학**,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편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110.
- 3) Youngju Kwon, “Charting the (Un)charted: Gospels as Ancient Biographies and Their (Un)explored Implications,” *Biographies and Jesus: What Does It Mean for the Gospels to Be Biographies?*, ed. Craig S. Keener and Edward T. Wright (Lexington: Emeth Press, 2016), 67-72.

(5) 총서

여러 권으로 이루어진 총서나 시리즈물의 경우, 총서와 시리즈물 정보뿐 아니라 각 권의 정보를 함께 기재한다. 자세한 형식은 아래를 참고하라.

<p>1) 총서명과 총서 내에 속한 책의 제목이 다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ill Durant and Ariel Durant, <i>The Age of Napoleon, The Story of Civilization</i>, vol. 11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75), 394-97. - 박형룡, 구원론, 교의신학 제5권 (서울: 은성문화사, 1972), 100. <p>2) 주석, 학술서 시리즈의 일부 (시리즈명은 약어로 표기해도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ris Keith, <i>Jesus' Literacy: Scribal Culture and the Teacher from Galilee</i>, Library of New Testament Studies 8 (New York: Bloomsbury, 2011), 135. - Douglas J. Moo, <i>The Epistle to the Romans</i>,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6), 1127-28. - 장춘식, 에스라 느헤미야, 성서주석 14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122-36. - 조재천, 히브리서, 그리스도인을 위한 통독 주석 시리즈 (서울: 홍성사, 2016), 178-79.
--

(6) 전자책

전자책(e-book)은 종이로 발간된 책의 출처 인용과 그 형태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그 출처에 대한 표기를 해야 한다. 만약, 온라인으로 책이 출판이 되었다면 URL을 포함해야 하며 접속 “년, 월, 일”을 표기한다. 인용하는 자료가 상업용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자료라면 URL 대신 데이터베이스명을 표기할 수 있다. 전자책의 경우 쪽수가 없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쪽의 표기를 포함한 형태의 전자책이라도 기기에 따라 그 표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출처 인용은 장/절(chapter/section) 구분으로 인용한다.

1) 김경옥, **문화와 영성: 잘못 끼워진 컷 단추** (서울: 요단출판사, 2019), Part III 하나님: 잘못 이해된 하나님관과 영성,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전자책 도서관.

2) Malcolm Gladwell, *Outliers: The Story of Success* (Boston: little, Brown, 2008), chap. 1, sec. 4, Kindle.

2) 정기간행물

정기간행물은 통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문헌을 의미하며, 문헌이 아닌 정기간행물은 기타 자료로 분류한다.

(1) 학술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전문학술지를 ‘학술지’(journal)로 분류한다. 국문 학술지명은 볼드체로 표기하고, 영문 학술지명은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학술지명에 이어 권수(volume number)를 표시하고, 호수(issue number)가 있을 경우 함께 표기한다. 권수와 호수는 슬래시(/)로 구분한다.(예. 24/3). 출판년도 괄호 뒤에 콜론(:)을 찍고 페이지 숫자를 기입한다. 자세한 형식은 아래를 참고하라.

- 1) 문상기, “주 5일 근무제 이해와 교회의 대응,” **복음과 실천신학** 7 (2004): 9-36.
- 2) 윤원준, “폴 리콰르의 해석학적 상상과 성경해석,” **문학과 종교** 14/3, 20 (2009): 39-62.
- 3) 최선범, “누가복음 11:5-8의 한밤중의 세 친구 비유 이해,” **신약논단** 27/3 (2020): 577-608.
- 4) Kiyoung Kim, “Testing God Becomes Rejection of the Land: Israel’s Sin in Psalm 106 in Light of the Psalm’s Chaistic Structure,”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48 (2021): 222-45.
- 5) In-Cheol Shin, “Matthew’s Designation of the Role of Women as Indirectly Adherent Disciples,” *Neotestamentica* 41/2 (2007): 399-415.
- 6) R. Christopher Heard, “Echoes of in 1 Chronicles 4:9-10: An Intertextual and Contextual Reading of Jabez’s Prayer,” *JHS* 4, no. 2 (2002): §2.7, accessed April 17, 2021, http://www.jhsonline.org/Articles/article_24.pdf.

(2) 잡지

여러 가지 형태의 글을 모아서 펴내는 정기간행물은 ‘잡지’(magazine)로 분류된다. 이는 발행 간격에 따라 주간, 월간, 계간으로 구분되며, 신문과 책의 중간 형태를 띤다. 정기간행 잡지에 실려 있는 기사의 경우에는, 학술지에 실린 글과는 달리, 잡지의 권수나 호수 등을 밝혀 적지 않고 발행일자만을 쓰되, “년, 월,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 뒤에 오는 인용 페이지 숫자와 구분이 되도록 한다. 온라인 상으로 발행된 정기간행문(잡지)은 URL 또는 상용 데이터베이스(commercial database)의 이름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김한원, “구약의 깊은 곳으로-1: 마음을 같이 하여,” **매거진re** 2019년, 2019년 8월, 79-81.
- 2) Alec Motyer, “The Prophet: Before the Exile,” *Tabletalk*, February, 2008, 10.
- 3) 기민석, “구약성경에 나타난 부활,” **목회와 신학**, 2021년 4월, <http://moksinsin.duranno.com/moksinsin/view/article.asp?Keyword=%B1%E2%B9%CE%BC%AE&articleNO=38305>.
- 4) Bryan Chapell, “The Future of Expository Preaching,” *Preaching*, July 29, 2020, https://preaching.org/pm_articles/the-future-of-expository-preaching/.

(3) 신문

한글로 발행되는 신문의 기사를 인용할 때는, 기사의 작성자, 기사제목, 매체정보를 기입한다. 독자를 위해서 면을 기입한다. 온라인 기사를 인용시에는 URL을 추가한다. 해외의 신문 기사를 인용할 경우, 지역에 따라 다른 판(edition)이 있을 수 있기에 이를 추가할 수 있으며, 이 때 면은 기입하지 않는다.

- 1) 정승태, “성서해석에서 텍스트와 독자의 연관성대 대해4,” **침례신문**, 2021년 4월 24일, 6면.
- 2) 장지동, “팬데믹, 목회 현장에 어떤 변화 가져올까?: 허준 교수, 침신대 개교 66주년기념 신학 특강서 발표,” **기독일보**, 2020년 7월 3일,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2110>.
- 3) John Pareles, obituary for David Bowie, *New York Times*, January 26, 2016, New York edition.

3) 미간행물

미간행물은 출판되지 않은 문헌 자료를 의미하는데, 편의상 학위논문,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보고서, 낱장 문헌의 세 가지로 나눈다.

(1) 학위논문

저자명을 쓰고, 학위논문제목을 인용부호(“ ”) 안에 표시한 후, 괄호 안에 학위명, 학위수여기관, 학위취득 연도를 밝힌 다음, 인용 페이지 숫자를 쓴다.

- 1) 김용복, “남침례교 신학전통 안에서의 인간론: 자유와 은혜개념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1997), 12.
- 2) 이상운, “교회를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한 마태복음 성경공부 교재 개발” (박사학위논문,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2020), 50.
- 2) Samuel Byung-doo Nam, “A Comparative Study of the Baptismal Understanding of Augustine, Luther, Zwingli, and Hubmaier” (Ph.D. diss.,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2002), 263.

(2) 학회나 모임에서 발표된 자료

발표자 이름을 쓰고, 논문 제목을 인용부호(“ ”) 안에 표시한 후, 발표일, 발표한 학회 이름을 밝힌 다음, 인용 페이지 숫자를 쓴다.

- 1) 윤원준, “테리다와 마리온의 생각 속에 나타나는 불/가능성의 선물,” 2003년 10월 24일, 기독교학회, 14-15.

(3) 낱장 자료

편지, 설교문, 안내책자 등을 인용했을 경우, 저자명(저자가 없을 경우 기록의 출처에 관한 정보), 문서의 성격, 기록 또는 작성 일자, 문서가 보관된 자료명, 인용된 페이지 숫자를 순서대로 기재한다.

- 1) Robert Cockburn, Melville 경에게 보낸 편지, 1819년 5월 17일, 루저스 대학교 원고 수집록 묶음 125, 47-48.
- 2) 홍길동, “진흙 한덩이의 운명,” 2004년 2월 22일, 하늘침례교회 주보.
- 3) 「지성·영성·감성 Digital」, 2003년 침례신학대학교 소개용 소책자, 7.

4) 기타 자료

문헌으로 출판되지 않은 모든 자료를 ‘기타 자료’로 분류한다(약보포함). 단, 사전류는 단행본 표기방식에 따른다.

(1) 악보

악보의 경우 작곡자명, 작품명, 출판 장소, 출판사명, 출판연도, 페이지 숫자를 차례대로 적는다. 특정한 마디를 지칭할 경우 페이지 숫자 대신 마디 숫자를 사용한다. 마디 숫자는 작품의 완전한 마디를 첫 마디로 세어 사용한다(못 갖춘마디로 시작하는 작품은 갖춘마디가 제1마디가 된다).

- 1) Franz Schubert, **Sämtliche Klavieronaten Band 2**, (Wien: Wiener Urtext Edition, 1998), 98.
- 2) Franz Schubert, **Fantasie C-Dur: “Wanderer-Fantasie,”** (Wien: Wiener Urtext Edition, 1900), 32-40마디.
- 3) Giuseppe Verdi, **REQUIEM**,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78), 5.
- 4) Claude Debussy, **Prelude a l’apres-midi d’un faune**, (Kassel: Barenreiter, 2011), 3.
- 5) Vincenzo Bellini, **Norma**, (Leipzig: Reclam, 1985), 10.

(2) 전문기관 자료

ERIC(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나 NTIS(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와 같이,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기관에서 나온 자료에 대해서는 각 자료에 대한 서지사항 끝에 자료제공 기관과 분류번호 혹은 보존형태 등을 첨가한다.

- 1) D. Beevis, "Ergonomist's Role in the Weapon System Development Process in Canada" (Downsview, Ont.: Defence and Civil Institute of Environmental Medicine, 1983), 8, NTIS, AD-A145 5713/2, microfiche.
- 2) Linda B. Rudolf, "The Impact of the Divorce Process on the Family," paper presented at the twenty-ninth annual meeting of the South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23-26 March 1983, 12, EDRS, ED 233277, microfilm.
- 3) Barbara Robson, *Tanzania: Country Status Report* (Washington, D.C.: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Language/Area Reference Center, 1984), 7, ERIC, ED 248700.

(3) CD-ROM이나 디스켓 형태의 전자매체에 수록된 자료

CD-ROM이나 디스켓 형태의 전자매체에 수록된 자료는 일반 문헌과 같은 방식으로 기록하지만, 출판사항 앞에 [디스켓] 혹은 [CD-ROM]이라고 명시한다.

- 1) Richard D. Lanham, *The Electronic Word: Democracy, Technology, and the Arts* [디스켓]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 2) Robin Toner, "Senate Approves Welfare Plan That Would End Aid Guarantee," *New York Times*, 20 September 1995, national ed., A2, *New York Times Ondisc* [CD-ROM], UMI-Proquest, December 1995.
- 3) Jeffrey Michael Jones, "A Survey of the Use of Household Appliances in Middle-Class American Homes, 1925-1960" (Ph.D. diss., University of Chicago, 1995), abstract i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vol. 55 (1995): 3578A, *Dissertation Abstracts Ondisc* [CD-ROM], November 1995.
- 4) 오해석, "21세기 정보화 사회와 교회의 사명," **설교작성의 좋은 친구, 솔로몬** [CD-ROM] (서울: 벤엘컴퓨터, 연도불명).
- 5) 한국신학정보연구원, **한국 신학정간물 기사색인: 개인용, No. 1, 1916-1998** [CD-ROM] (서울: 누리미디어, 연도불명).

(4) 오디오-영상매체 자료(LP, Cassette, CD, VHS, LD, DVD)

오디오나 영상매체 자료는 작곡가명, 작품명, 연주단체명, 연주자명을 차례로 적고 괄호 안에 제작회사명과 번호를 순서대로 적는다. 괄호 밖에 출판연도를 적는다. 여러 장으로 구성된 매체의 경우, 장 혹은 트랙의 번호를 괄호 밖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매체자료에 포함된 해설 내용을 인용한 경우 작성자의 이름, “자켓 해설,” 작품명을 순서대로 적고 괄호 안에 제작회사명과 번호 그리고 출판연도를 적는다.

- 1) Bela Bartók, 피아노 협주곡 제3번 (Vox 11490), 1970.
- 2) Wolfgang Amadeus Mozart, 교향곡 라장조, 제38번(프라그), K. 504 (Columbia ML-4313), 1965.
- 3) Sergei Prokofiev, 피아노 협주곡 제3번, Rryon Janis, piano, Moscow Philharmonic Orchestra, Kryil Kondrashin, conductor (Mercury MG 50300), 1992.
- 4) Anton Webern, “라틴 가사에 의한 다섯 개의 캐논,” 작품 16, 베베른 전집 (Webern: The Complete Music), (Columbia K4L-232), CD 2, track 2, 2000.
- 5) Brno Walter, 자켓 해설, 교향곡 제1번 라장조 (Columbia ML 5794), 1991.

(5) 면담(인터뷰)

(미출판) 면담 자료는 면담 대상자, 면담 진행자, 면담 일자, 면담 장소 그리고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자료명이나 내용 보관 형태 순서로 밝혀 적는다. 각 정보는 쉼표(.)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인용하는 자료가 논점에 핵심적인 내용이거나, 자주 인용되는 출처가 아닌 이상 참고자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 1) 남용희, 연구자와 면담, 1997년 7월 15일, 울릉도 서달교회당, 녹음테이프 34-A.
- 2) Merle A. Roemer, interview by author, 26 July 1973, Millington, MD., tape recording.

(6)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회차, 에피소드명, 첫 방송날짜, 방송사명 순으로 적는다. 만약, 온라인으로 시청 후 출처인용시 URL을 마지막에 적는다. 국내 프로그램의 경우, 제목은 큰따옴표(“ ”)안에 기입한다. 서양 프로그램의 경우는 프로그램명을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논점을 위해 필요하다면, 프로그램의 디렉터, 에피소드 작가의 이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예) 프로그램명, 회차, 에피소드명, 첫 방송날짜, 방송사명, URL.

- 1) 동성애 그 무서운 진실, 2편, “동성애의 비밀스러운 움직임 쿼어 신학,” 2020년 11월 30일, CGNTV, <http://www.cgntv.net/tv/36083/20404254/vlist.cgn>.
- 2) *The Bible*, episode 2, “Exodus,” March 3, 2013, on Amazon Prime.

II. 참고자료 목록 표기 방식

학술 논문 저자는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인용 혹은 참고한 자료들의 목록을 제공한다. 참고자료 표기를 위한 기본적인 설명과 상세한 예는 아래를 참고하라.

1. 기본 형식

1) 순서

참고자료 목록을 쓰는 순서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문헌 자료인 경우 각주와 같이 저자명, 자료명, 출판사항의 순으로 표시한다. 저자명을 표시할 때 외국인명의 경우, 성-성표-이름-마침표의 순으로 쓴다(예: Barth, Karl.).자료명의 경우 각주 기입 원칙과 같다. 그러나 출판사항을 표시할 경우 각주에서는 그 내용을 괄호 안에 넣지만, 참고자료 목록의 경우에는 괄호를 뺀다.

2) 마침표 구분

참고자료 목록은 저자명, 자료명, 출판사항을 각각 독립된 요소로 간주하여 모두 마침표(.)로 구분한다.

3) 두 줄 이상 자료의 경우

참고자료 목록에 들어갈 자료 중 두 줄 이상이 요구되는 자료의 경우, 두 번째 줄부터는 다섯 칸을 들인 후 여섯 칸부터 쓴다. 한글 프로그램에서 ‘편집’(E)을 클릭하여 ‘문단 모양’(Alt+T)을 택한 후 기본 창에서 첫 줄의 ‘내어쓰기’(B)를 25 포인트로 설정하면 쉽게 맞출 수 있다. 자료와 자료사이의 행간을 벌릴 때는 ‘간격’의 ‘문단 아래’에서 20포인트를 지정하면 된다(<그림 10> 참조).

Stagg, Frank. "Matthew." <i>The Broadman Bible Commentary</i> , vol. 8. Nashville: Broadman Press, 1969.
--



<그림 10> 참고자료 문단모양 설정

2. 분류와 배열

1) 분류

참고자료는 크게 단행본, 정기간행물, 미간행물, 기타 자료로 분류한다. 각 항목 안에서는 별도의 소제목 번호 구분 없이 한국어 자료, 외국어 자료의 순서로 기입한다. 단, 번역 자료는 외국어 자료에 포함시키고, 동양서적을 서양서적 앞에 둔다.

자료들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열거해야 할 때는 구분의 기준이 되는 각 항목에 일련번호를 붙여서 먼저 열거한 후에 각 항목 밑에 해당되는 자료들을 열거한다. 예를 들면, 1. 단행본, 2. 정기간행물, 3. 미간행물, 4. 기타 자료로 구분할 수도 있고, 1. 일차 자료,

2. 이차 자료로 구분하면서 그 각각에 대하여 다시 1) 단행본, 2) 정기간행물, 3) 미간행물, 4) 기타 자료로 세분할 수도 있다(<부록 11> 참조).

2) 알파벳순

자료들은 저자의 성을 자모순, 또는 연도순에 따라 차례로 수록한다. 단, 한 저자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자료들을 수록해야 할 경우에는 오래된 자료를 먼저 적는다.

3. 대표적인 참고자료 목록 사례

학교에서 정한 참고자료 목록 기재요령에 따라 대표적인 사례들을 단행본, 정기간행물, 미간행물, 기타 자료 순서로 분류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단행본

(1) 1인 저자

위에서 언급한 참고자료 목록 작성법 ‘기본형식’에 준하여 쓴다.

안희열. **바울, 교회에서 길을 찾다**. 서울: 두란노서원, 2021.

Cho, Dongsun. *St. Augustine's Doctrine of Eternal Punishment: His Biblical and Theological Argument*. Lewiston: The Edwin Mellen Press, 2010.

(2) 2인 이상의 저자

2인 저자까지는 이름을 모두 적는다. 이때 한국 저자의 이름과 이름 사이에는 가운뎃점(.)으로 구분하고, 외국 저자의 경우 가운뎃

점 대신에 ‘and’를 쓴다. 외국 저자명의 경우 첫 번째 저자는 성-성표-이름 순으로 두 번째 저자는 각주와 마찬가지로 이름-성 순으로 기재한다.(예. Evans, Stephen and Zachary Manis) 저자가 3인 이상 이상일 때, 한국 저자의 경우 ‘OOO 외 2인’ 형식으로 표기하고, 외국 저자의 경우 대표 저자명 이후 et al.을 붙인다.

김태식·오지원. **한국침례교회 100년의 향기**. 서울: 누가, 2020.

Evans, Stephen and Zachary Manis. **종교 철학: 기독교 신앙의 철학적 조명**. 정승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6.

이현모 외 5인. **와이 미션?: 하나님을 기쁘게, 열방이 주를 기뻐하게**. 서울: 두란노서원, 2015.

Komatose, Max et al. *Ensemble Acting in the Off-Loop Theaters of Chicago*. Toledo: WrightSmart Press, 1995.

(3) 같은 저자의 자료들

같은 저자의 자료들이 두 개 이상 있을 때, 오래된 자료를 먼저 기재하고 두 번째 자료부터는 저자명에 밑줄을 친다.

유동식. **한국신학의 광맥**. 서울: 전망사, 1982.

〔 6칸 〕 **풍류도와 한국의 종교사상**.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7.

Coleman, Lucien E., Jr. *Understanding Today's Adults*. Nashville: Convention Press, 1982.

마지막 예

〔 8칸 〕 “Adults Are the Church Now.” *A Church Ministering to Adults*. Edited by Jerry M. Stubblefield. Nashville: Broadman Press, 1986, 278-83.

(4) 편집 혹은 번역된 책

각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하되 각 정보는 쉼표(.) 대신 마침표(.)로 구분한다. 또한 외국어 저서의 경우 편집과 번역에 대한 정

보를 풀어서 써 준다(예. ed. → Edited by; trans. → Translated by).

김승혜 편. **종교학의 이해: 종교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왜관: 분도출판사, 1986.

Viney, Donald Wayne and Jincheol O, eds. *Creative Experiencing: A Philosophy of Freedom*. New York: SUNY Press, 2011.

Banks, Robert. **바울의 공동체 사상**. 장동수 역. 서울: IVP, 2007.

McBeth, Leon. **침례교회의 역사와 유산**. 김용국 외 역. 대전: 한국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13.

Allen, David. **프리칭틀스**. 임도균 외 편역. 서울: 디사이플, 2019.

Käsemann, Ernst. *On Being a Disciple of the Crucified Nazarene*. Translated by Roy A. Harrisville. Grand Rapids: Eerdmans, 2010.

(5) 편집된 책의 일부

각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하되, 각 정보는 쉼표 대신 마침표로 구분한다.

김종걸. “동성애와 대중문화: 동성애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동성애 성경에서 답을 찾다**.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편.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20, 223-53.

양병모. “목회자의 소명.” **복음주의 목회학**.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편.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93-120.

Kwon, Youngju. “Charting the (Un)charted: Gospels as Ancient Biographies and Their (Un)explored Implications.” *Biographies and Jesus: What Does It Mean for the Gospels to Be Biographies?* Edited by Craig S. Keener and Edward T. Wright. Lexington: Emeth Press, 2016), 59-76.

(6) 총서

각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하되, 각 정보는 쉼표 대신 마침표

로 구분한다. 외국어 총서의 권(volume) 정보는 대문자로 표기하고 (예. vol. 1 → Vol. 1) 시리즈명은 가급적 약어가 아닌 풀네임(예. LNTS → Library of New Testament Studies)을 사용한다.

<p>1) 총서명과 총서 내에 속한 책의 제목이 다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urant, Will and Ariel Durant. <i>The Age of Napoleon</i>. Vol. 11 of <i>The Story of Civilization</i>.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75. - 박형룡. 구원론. 교의신학 제5권. 서울: 은성문화사, 1972. <p>2) 주석, 학술서 시리즈의 일부(시리즈명은 가급적 풀네임을 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ith, Chris. <i>Jesus' Literacy: Scribal Culture and the Teacher from Galilee</i>. Library of New Testament Studies 8. New York: Bloomsbury, 2011. - Moo, Douglas J. <i>The Epistle to the Romans</i>.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6. - 장춘식. 에스라 느헤미야. 성서주석 14.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조재천. 히브리서. 그리스도인을 위한 통독 주석 시리즈. 서울: 홍성사, 2016.
--

(7) 전자책

각주 쓰는 순서에 준하여 쓰되, 심표 대신 마침표로 각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다르다.

<p>김경옥. 문화와 영성: 잘못 끼워진 컷 단추 (서울: 요단출판사, 2019). Part III 하나님: 잘못 이해된 하나님관과 영성,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전자책 도서관.</p> <p>Gladwell, Malcolm. <i>Outliers: The Story of Success</i> (Boston: little, Brown, 2008), chap. 1, sec. 4, Kindle.</p>

2) 정기간행물

(1) 학술지

각주의 표기방식과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십표(.) 대신 마침표(.)로 구분한다. 영문 정기간행 학술지의 경우에 발행 권수(volume number)는 소문자로 표시한다. 또한 각주에서는 인용한 페이지 숫자만을 쓰지만 참고자료 목록에서는 그 글이 수록되어 있는 페이지 범위를 숫자로 나타낸다. 페이지 앞에는 세미콜론(:)을 사용한다.

정진황. “예레미야의 부르심 받은 체험기(3).” **복음과 실천** 22집 (1998 여름): 11-36.

우택주. “고대 이스라엘과 유다의 장례예식.” **성경과 신학** 26권 (1999): 29-57.

최재욱. “국가와 교회의 관계.” **신학세계** 8권 5호 (1986 가을): 61-72.

Harding, D. W. “Regulated Hatred: An Aspect of the Work of Jane Austen.” *Scrutiny* vol. 8 (March 1940): 340-55.

Principe, Walter. “Toward Defining Spirituality.” *Studies in Religion* vol. 12, no. 2 (1983): 127-41.

(2) 잡지

각주의 표기방식과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십표 대신 마침표로 구분하며, 페이지는 그 글이 수록되어 있는 전체 페이지를 쓴다. 단, 잡지의 경우는 학술지와 달리 발행 연월과 페이지 사이를 십표로 구분하며, 영어로 날짜를 표기할 때는 일-월-년 순으로 쓴다.

김종열. “한국 교회의 귀족화 현상.” **기독교사상**. 1973년 6월, 45-56.

박홍수. “통일논의 신중하게 하자.” **주간조선**. 1988년 7월 31일, 24-25.

Fisher, Anne. “Ford Is Back.” *Fortune*. 23 December 1985, 18-19.

(3) 신문

신문은 글쓴이와 글의 제목을 표기하지 않고, 신문이름과 발행일자만 쓴다.

한국일보. 1999년 12월 20일.

교육신보. 1999년 11월 10일.

New York Times. 5 March 1984.

3) 미간행물

각주의 표기방식과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저자명과 자료명 사이에 쉼표(.) 대신 마침표(.)로 구분하는 것이 다르다.

(1) 학위논문

각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하지만, 각 정보 사이는 쉼표 대신 마침표로 구분한다. 단, 학위명, 학위수여기관, 학위취득 연도는 한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그 사이를 쉼표로 구분한다.

김근곤. “정의적 집단 경험이 중학생의 성격 형성에 미치는 효과.” 석사 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1983.

Nam, Samuel Byung-doo. “A Comparative Study of the Baptismal Understanding of Augustine, Luther, Zwingli, and Hubmaier.” Ph.D. diss.,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2002.

(2) 학회나 모임에서 발표된 자료

각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하되, 각 정보 사이는 쉼표 대신 마침표로 구분한다.

윤원준. “데리다와 마리온의 생각 속에 나타나는 불/가능성의 선물.”
2003년 10월 24일. 기독교학회.

(3) 낱장 자료

저자명과 자료명 등 모든 내용을 마침표로 구분한다.

Robert Cockburn. “Melville 경에게 보낸 편지.” 1819년 5월 17일. 루저스
대학교 원고 수집록 묶음 125.

홍길동. “진흙 한덩이의 운명.” 2004년 2월 22일. 하늘침례교회 주보.

교수회의 회의록. 2003년 11월 3일. 침례신학대학교 교수회의실.

지성·영성·감성 **Digital**, 2003년 침례신학대학교 소개용 소책자.

4) 기타 자료

(1) 악보

항목 기입 순서는 악보의 각주 표기 방법에 준하여 쓰되 각주에서
쉽표(.)로 항목 구분을 하던 것을 참고자료 목록에서는 마침표(.)
로 구분한다. 참고자료 목록 표기의 기본 방식에 맞춰 서양 저자인
경우 성을 먼저 쓰고 쉽표를 친 후 이름을 쓴다. 그리고 서지사항
을 나타내는 괄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Schubert, Franz. **Sämtliche Klaviersonaten Band 2**. Wien: Wiener Urtext
Edition, 1998.

Schubert, Franz. **Fantasia C-Dur: “Wanderer-Fantasia.”** Wien: Wiener Urtext
Edition, 1900.

Verdi, Giuseppe. **REQUIEM**.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78.

Debussy, Claude. **Prelude a l’après-midi d’un faune**. Kassel: Barenreiter, 2011.

Bellini, Vincenzo. **Norma**. Leipzig: Reclam, 1985.

(2) 전문기관 자료

항목 기입 순서는 전문기관 자료의 각주 표기 방법에 준하여 쓰여 각주에서 십표로 항목 구분을 하던 것을 참고자료 목록에서는 마침표로 구분한다. 참고자료 목록 표기의 기본 방식에 맞춰 외국 저자인 경우 성을 먼저 쓰고 십표를 친 후 이름을 쓴다. 그리고 출판사항을 나타내는 괄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Beevis, D. "Ergonomist's Role in the Weapon System Development Process in Canada." Downsview, Ont.: Defence and Civil Institute of Environmental Medicine, 1983. NTIS, AD-A145 5713/2. Microfiche.

Rudolf, Linda B. "The Impact of the Divorce Process on the Family." Paper presented at the twenty-ninth annual meeting of the South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23-26 March 1983. EDRS, ED 233277. Microfilm.

Robson, Barbara. *Tanzania: Country Status Report*. Washington, D.C.: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Language/Area Reference Center, 1984. ERIC, ED 248700.

(3) CD-ROM이나 디스켓 형태의 전자매체에 수록된 자료

저자명, 표제명, 매체 유형, 발행 사항 등을 각주 쓰는 방법에 준하여 쓴다. 다만, 각 항목 사이는 십표 대신 마침표를 쳐서 구분한다.

Toner, Robin. "Senate Approves Welfare Plan That Would End Aid Guarantee." *New York Times*, 20 September 1995, national ed., A2. *New York Times OnDisc* [CD-ROM]. UMI-Proquest, December 1995.

Lanham, Richard D. *The Electronic Word: Democracy, Technology, and the Arts* [디스켓].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오해석. "21세기 정보화 사회와 교회의 사명." **설교작성의 좋은 친구, 솔로몬**. [CD-ROM] 서울: 벨엘컴퓨터, 연도불명.

한국신학정보연구원. **한국 신학정간물 기사색인: 개인용, No. 1, 1916-1998**. [CD-ROM]. 서울: 누리미디어, 연도불명.

(4) 오디오-영상매체 자료(LP, Cassette, CD, VHS, LD, DVD)

오디오나 영상매체 자료는 작곡가, 저자, 혹은 제작자의 성명을 성과 이름순으로 적고 작품명, 연주단체명, 연주자명을 순서대로 필요에 따라 포함시킨다. 제작회사명과 번호는 괄호 없이 순서대로 적고 제작연도는 매체 포맷을 포함하여 적는다.

Bartók, Bela. 피아노 협주곡 제3번. Vox 11490, 1970. LP.

Mozart, Wolfgang Amadeus. 교향곡 라장조, 제38번(프라그), K. 504. Columbia ML-4313, 1965. Cassette.

Prokofiev, Sergei. 피아노 협주곡 제3번. Ryon Janis, piano, Moscow Philharmonic Orchestra, Kryil Kondrashin, conductor. Mercury MG 50300, 1992. CD.

Webern, Anton. "라틴 가사에 의한 다섯 개의 캐논," 작품 16. **베베른 전집** (Webern: The Complete Music). Columbia K4L-232, 2000. CD 2, track 2.

Walter, Brno. 자켓 해설, 교향곡 제1번 라장조. Columbia ML 5794, 1991. CD.

(5)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자료

각주 표기 방법에 준하여 쓴다. 다만, 저자명과 표제 또는 글의

제목 사이는 마침표로 구분한다. 페이지 숫자와 접속 주소 사이, 그리고 접속 주소와 접속 날짜는 마침표로 각각 구분한다.

Baker, Joanne C. Baker and Richard W. Hunstead. "Revealing the Effects of Orientation in Composite Quasar Spectra." *Astrophysical Journal* [온라인 학술지] (October 1995): 220-30. <http://www.aas.org/ApJ/v452n2/53095309.html>. 1995년 9월 29일 접속.

Mitchell, William J. *City of Bits: Space, Place, and the Infobahn* [온라인 단행본]. Cambridge, Mass.: MIT Press, 1995. http://www.mitpress.mit.edu:80/City_of_Bits/Pulling_Glass/index.html. 1995년 9월 29일 접속.

(6) 면담(인터뷰)

각주 쓰는 순서에 준하여 쓰되, 심표 대신 마침표로 각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다르다.

남용희. 연구자와 면담. 1997년 7월 15일. 올림도 서달교회당. 녹음파일 34-A.

Hunt, Horace. Interview by Ronald Schatz. 16 May 1976. Tape recording. Pennsylvania Historical and Museum Commission. Harrisburg.

3부 사회과학계열 작성지침

3부에서는 사회과학계열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소개한다. 주(註)를 표기하는 방식과 참고자료를 표기하는 방식이 주로 다뤄진다. 사회과학계열 연구자가 논문을 쓸 때는 1부 공통준수 사항에 언급된 내용과 함께 이곳에서 다루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 표기 방식

인용한 글이나 이론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사용되는 주된 방법은 주(註)를 다는 것이다. 주를 다는 방식에는 각주(脚註) 방식, 후주(後註) 방식 그리고 본문 안에 인용 자료를 표기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 학교의 사회과학계열 연구자가 논문을 쓸 때는 본문 안에 인용 자료를 표기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되 필요할 때는 각주를 사용할 수 있다. 각주는 해당 페이지 밑에 참고자료의 내용을 기입하는 방식인데, 그것에는 본문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되는 ‘내용 각주,’ 다른 문헌을 인용할 때 사용하는 ‘저작권 허가 각주,’ 그리고 제목이 있는 첫 페이지 아래에 연구자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연구 지원 및 기타사항 각주’가 있다.

1. 각주 표기 방식

1) 내용 각주

내용 각주는 본문의 중요한 정보를 보충하고,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 때 사용된다. 연구자는 읽는 사람이 본문 내용에 집중하도록 하되, 본문을 보충하기 위해 내용 각주를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간단히 제시한다. 각주에서는 둘 이상의 문단을 만들거나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내용들은 본문에 담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부록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문에 꼭 제시할 필요가 없는 증명절차나 어원의 규명과 같이 길고 복잡한 내용인 경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에 대한 정보나 그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출처 등을 각주에 짧게 제시한다. 필요한 경우 부록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보충자료를 볼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할 수도 있다. 표는 출처 자료를 표 주석으로 표시하고, 그림의 경우는 제목의 끝 부분에 넣는다.

모든 내용 각주는 본문에 나타나는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인다. 일련번호는 위첨자로 아라비아 숫자를 반 괄호로 묶는다. 내용 각주의 길이는 너무 길지 않게 한다. 글의 제목에는 각주 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각주 기능을 문서 작업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때 내용 각주는 논의하는 본문과 같은 페이지에 표기되도록 하고, 각주번호는 본문 번호와 일치해야 한다. (예 연구대상)은 유아 10명과 교사 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저작권 허가 각주

저작권 허가 각주는 인용의 출처를 제시하는 것이다. 즉, 길이가

1)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다.

긴 인용문, 척도와 검사 항목, 다시 사용하거나 수정한 표와 그림의 출처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저작권 허가 각주는 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연구자가 자료를 재사용하거나 수정하려면 저작권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여기에는 합법적으로 인용한 자료나 제한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료가 포함된다. 인용한 모든 자료는 표나 그림 아랫선 바로 밑에 ‘주’라고 표시하고, 출처를 밝힌다(109쪽 ㉠1-2 참조). 출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참고자료 목록에 기재한다.

3) 연구 지원 및 기타사항 각주

연구비 지원이나 논문 수행에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는 제목 끝에 위첨자로 별표(*)를 하고, 하단의 각주 첫 줄에 지원 사항을 밝힌다. 특정 개념에 대해 논문 심사위원이 제시한 내용임을 밝혀야 할 경우는 그와 관련된 것을 각주로 설명할 수 있다. 연구 논문에 대해 추가적으로 밝힐 사항이 있을 때도 각주로 그 사실을 밝힌다. 예를 들어, 현재 논문이 이전 연구나 학위 논문에 기초했다면 그 사실을 설명한다. 논문이 기타 세미나와 학술 발표회에서 발표된 경우에도 여기에 밝히고, 발표 날짜와 장소를 쓴다(㉠1). 해당 연구가 다른 논문으로 출판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도 이 사실을 밝힌다(㉠2). 논문 내용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이해나 갈등의 여지가 있을 때에도 이러한 사항을 설명한다.

㉠1 본 연구는 2015년도 한국육아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4월 22일, 원광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발표되었음.

㉠2 본 연구는 2015년도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노인대학 참여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일부임.

2. 본문 안에 인용자료를 표기하는 방식

1) 참고한 자료에 대해 본문 안에 표기할 내용

논문 작성을 위해 다른 자료를 인용하거나 참고한 경우, 읽는 사람을 위해 본문에 인용한 사항을 간단히 밝히고,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목록에서 밝힌다. 본문에는 인용한 자료의 저자명을 표시하고, 인용한 참고자료의 출판연도를 표기한다. 읽는 사람은 이러한 방법으로 출처를 확인하고, 논문 뒷부분에 있는 참고자료 목록에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문에 인용된 자료는 반드시 참고자료 목록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본문에서 사용하지 않은 자료를 참고자료 목록에 기재해서는 안 된다. 동일한 자료에 대해 본문의 주와 참고자료 목록에 기재된 저자명과 출판연도는 서로 일치해야 한다.

2) 직접 인용의 경우

인용방식은 이 책의 1부 “공통 작성지침” 중 “인용 지침”에 언급된 내용에 준하여 표기해야 한다(34 페이지 참조). 네 줄이 넘지 않는 직접 인용문의 경우에는 “같은 줄 인용” 방식을 활용하고, 다섯 줄 이상의 분량을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줄 바꾼 인용” 방식을 활용한다.

3) 본문 안에 인용 자료를 표기하는 실제 방식

(1) 인용하는 저서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 간접 인용의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연도만을 쓰고, 직접인용의 경우에는 발행연도와 해당 쪽을 표시한다.

예1 이 문제에 관하여 이지원(2015)은...

예2 이지원(2015)은 “유아기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pp. 17-18)라고 주장하였다.

(2)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저자명과 발행연도를 표시한다
[예] 한 연구(이지원, 2015)에 의하면...].

(3) 하나의 사항에 여러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국내자료, 동양자료, 서양자료 순으로 발행연도별로 나열하되, 국내자료와 동양자료는 저자명의 가나다순으로, 서양자료는 저자명을 알파벳순으로 열거한다. 문헌들 사이는 쌍반점(;)으로 가른다[예] 최근의 선행연구(이지원, 2015; 毛澤東, 1997; Hatchs, 2010)에 의하면...].

(4) 한 저자의 다수 저서를 인용한 경우: 발행연도 순으로 기재한다[예] 이지원(2005, 2009, 2015)은...].

(5) 저자가 기관이나 단체인 경우: 기관명을 저자명으로 하고 전체 기관명을 밝힌다(예1, 2 참조). 그러나 그 이름을 반복 사용할 때는 축약해서 표기할 수 있다((예3, 4 참조).

예1 최근 연구(교육과학기술부, 2013)에 의하면...

예2 외국의 연구(National Association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2015)에 의하면...

예3 교과부(2013)에 의하면...

예4 NAEYC(2015)에 의하면...

(6)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최초로 인용된 경우에는 다수 저자 이름을 전부 표기하고(예1, 2 참조), 두 번째 이상부터는 주저자 이름 뒤에 ‘등’이나 ‘et al.’을 붙여서 표기한다(예3, 4 참조).

예1 이지원, 홍길동, 김복동(2012)에 의하면... 또는 (이지원, 홍길동, 김복동, 2012)

예2 Hatchs, Govin과 Zigler(2010)에 의하면... 또는 (Hatchs, Govin & Zigler, 2010)

예3 이지원 등(2012)은... 또는 한 연구(이지원 등, 2012)에 의하면...

예4 Hatchs 등(2012)에 의하면(2012)... 또는 (Hatchs, et al., 2012)

(7) 재인용한 자료의 경우: 원저자의 저자명을 쓰고 괄호로 묶어 재인용된 연구의 저자명과 재인용 연구의 출판연도를 제시하여 재인용 출처를 밝힌다. 참고자료 목록에서는 재인용 자료(실제로 본 자료)만 제시한다(예 김용기(2014, Williams, 1998에서 재인용)의 연구에서는...).

(8) 번역서의 경우: 원저의 저자명을 적고 원저의 출판연도와 번역서의 출판연도를 빗금(/)으로 구분하여 나란히 표기한다. 원저의 출판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번역서의 출판연도만을 표기한다 [예 놀이에 대하여 Johnson(2006/2008)은... 또는 (Johnson, 2006/2008)].

(9) 판례나 법령과 같은 법률 자료의 경우: 저자가 없는 인용과 마찬가지로 법령의 이름이나 판례의 표기방식에 따라 표기하고 연도를 기록한다(예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대통령령 제 16189호, 1999)에서...).

(10) 한 괄호 안에 두 편 이상의 연구를 인용한 경우: 동일인의 연구가 두 편 이상 인용되었을 경우에는 출판연도가 오래된 것부터 배열한다. 이때 저자명은 한 번만 쓰고 출판연도를 순서대로 쓴다. 출판연도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구 제목의 가나다순으로(영문의 경우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 후 출판연도 뒤에 소문자 a, b, c로 구분하여 제시한다(예1 참조). 동일인이 아닌 연구가 두 편 이상 인용되었을 경우에는 저자명의 가나다순으로 쓰고 연구와 연구 사이에 쌍반점(;)을 찍어 연구를 구분한다(예2, 3 참조).

예1 선행연구들(이지원, 2014a, 2014b)에 의하면...

예2 여러 연구(손수영, 2013; 이지원, 2014)에서는...

예3 ...라고 주장하였다(손수영, 2013; 이지원, 2014).

3. 부록 표기 방식

부록은 본문에 제시하면 읽는 사람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나, 이를 제시함으로써 연구 이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나 상세한 정보가 있을 때 사용한다. 부록의 자료는 비교적 짧고 쉽게 인쇄할 수 있는 형태가 적합하다.

부록으로 표기할 수 있는 적당한 사례들에는, 연구도구(질문지나 검사도구), 복잡한 장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연구 참여자에 대한 자세한 인구학적 배경, 기타 세부적이고 복잡한 보고서 항목 등이 있다. 부록은 영문 초록 다음에 별지를 사용하여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부록의 구별과 인용

부록이 한 개일 경우는 부록을 구분하는 번호나 알파벳 표기 없이 ‘부록’이라고 쓴다. 그러나 부록이 둘 이상일 때는 본문에 언급된 순서대로 ‘부록 I’, ‘부록 II’ 등과 같이 각 부록에 제목을 붙여서 표기한다. 각 부록은 줄을 달리하고 제목을 붙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며, 본문에서 부록의 제목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예] 두 연구에서의 동일한 결과 (부록 I, II)는...].

2) 부록의 내용과 제목 배열

부록에도 제목과 소제목은 단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부록 내 제목의 수준이나 단은 본문과는 별개로 처리한다. 각 부록은 새 페이지에서 시작한다.

본문에서 인용한 내용은 본문과 같은 규칙으로 부록에 제시한다. 부록에도 본문처럼 표, 그림, 수식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부록의 표와 그림도 인용한 순서대로 부록 내에 번호를 붙인다. 부록은 하나지만 그 속에 표, 그림, 공식 등이 있을 경우, 부록을 구분하는 로마숫자 뒤에 줄을 긋고, 그 뒤에 아라비아 숫자로 번호를 붙여 순서대로 구분하여 표기한다[예] 부록 I-1, II-2, III-3].

4. 보충자료 표기 방식

온라인 보충자료는 바로 내려 받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적인 종이 출판 형태로 쉽게 볼 수 없을 때 필요하다. 온라인 보충자료의 적절한 사례에는 길이가 긴 컴퓨터 코드, 수학이나 복잡한 컴퓨터 언어 계산 과정, 음성이나 영상자료, 크기가 큰 표, 세부적인 실험계획안, 중요하거나 보충적인 데이터 시리즈, 색깔이 들어

간 그림 등이 있다. 보충자료도 간행물 기록의 일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또는 삭제할 수 없다. 연구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보충자료 형태는 다음과 같다.

본문	ASCII, Word, PDF, HTML
표	Excel, Word, HTML, XHTML, XML
소리 또는 동영상	AVI, MPG, Quicktime, RM, MP3, WAV
카툰	GIF, JPEG, Flash/ Shockwave
그림	JPEG, GIF, TIFF

보충자료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www.apastyle.org” 사이트를 참고하면 좋다. 보충자료는 출판 내용의 해석이 가능하도록 정보가 충분해야 한다. 제출한 보충자료는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다. 보충자료도 저작권 규정과 윤리규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자료를 정확히 표현하고,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초상권도 보호해야 한다.

II. 표와 그림

제한된 지면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제시해야 할 경우, 표와 그림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표는 양적인 정보나 질적인 정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행과 열로 나누어 배치한 자료다. 그림은 일반적으로 문자로 표기할 수 없는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자료를 의미하나, 양적인 정보를 차트나 그래프로 표현한 자료 또한 그림으로 간주한다.

연구 정보를 제시할 때 표나 그림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떤 정보를 제시할지 선택해야 한다. 선택의 권한은 전적으로 연구

자에게 있지만, 그 과정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연구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정보만을 표나 그림으로 제시해야 하며, 부수적이거나 지나치게 상세한 정보는 과감히 생략하거나 필요하다면 부록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본문과 비교할 때 너무 많은 표나 그림이 제시되면 본문의 흐름이 자주 끊겨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표나 그림의 틀이 차지하는 기본적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정보의 양이 많지 않다면 오히려 문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표

1) 표의 구성

표(table)는 표의 번호, 제목, 본문, 주로 구성된다. 비록 본문에서 표의 내용을 언급한다 할지라도, 표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표 자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약자나 특수 표기(예 밑줄)의 의미, 측정 단위 등을 주를 통해 밝혀야 한다. 표에 사용된 동일한 정보가 여러 표에 반복해서 제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한 논문 안에 제시된 표들 사이에는 양식의 일관성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2) 표와 본문의 관계

표는 본문의 내용을 보충하기는 하지만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본문에는 제시된 표를 빠짐없이 언급하여, 독자가 본문을 읽으면서 무엇을 참조해야 할지 알려야 한다. 단, 표에 제시된 자료나 수치를 본문에 일일이 기록한다면 표를 사용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표의 핵심 내용만을 논의해야 한다. 본문에서 표의 내용을 언급할 경우, 해당 표의 번호를 표기한다.

다(주의: ‘아래 표에 제시된...’과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예1 예측한 대로 결과가 나왔다<표 1>.

예2 표 1은 상담 후 변화를 보여준다.

3) 표 번호

표를 제시할 때는 본문에서 언급한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번호를 배정한다(예 ‘표 1,’ ‘표 2,’ ‘표 3’ 등). 비록 유사한 범주에 속하는 정보가 몇 개의 표에 이어서 제시되더라도, ‘표 1-1,’ ‘표 1-2’ 혹은 ‘표 1a,’ ‘표 1b’ 등의 표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부록에 표가 포함될 경우 ‘1’번부터 다시 숫자를 부여한다. 부록이 2개 이상일 경우 로마 숫자를 써서 부록 I, 부록 II, 부록 III 등으로 표기하며, 여기에 표가 포함되면 표 I-1, 표 I-2, 표 II-1, 표 II-2 등으로 표기한다.

4) 표 제목

제목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간단하고 명료한 형태로 기술한다. 만일 제목에 약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괄호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긴 설명이 필요할 경우 표 아래에 주를 활용하여 기술한다.

표의 제목은 표의 위쪽 왼 편에 위치하도록 하며 중고딕체 10포인트 크기로 표기한다. 표 번호 뒤에 한 칸 띄어 제목을 기술한다. 표 제목이 길어서 두 줄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들여쓰기나 내어쓰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표기한다.

5) 표제 단어

표제 단어(heading)는 표 안에 정보가 어떻게 조직화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표 내부 공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표제 단어 역시 가능한 짧고 명료한 형태로 기술해야 한다. 일 상에서 사용하는 약자는 추가적인 설명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전문용어나 특수용어에 해당하는 약자는 주에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6) 표의 본문

표에 정보를 제시할 때도 연구 내용(주제)과 관련 있는 주요 정보만을 간결하게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의 본문에 정보를 제시할 때 측정치의 소수점 표기 기준과 단위 등을 통일시켜야 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소수점 이하 표기는 두 자리를 넘지 않도록 한다.

표에서 제시할 정보가 없는 칸은 빈칸으로 남겨둔다. 단, 어떤 이유로 인하여 자료를 얻지 못했거나 일부러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이픈(-) 표시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상관행렬 표에서 하이픈은 어떤 항목의 상관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예 동일한 측정치 간의 상관; $r=1.00$)를 나타내는데, 이 경우는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경우에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를 상세 주에 덧붙여야 한다.

최근 학계에서는 평균이나 상관계수, 회귀계수 등의 단일 측정치와 함께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s)을 제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신뢰구간을 제시할 때는 몇 %의 신뢰구간인지를 표기해야 하고(예 95% CI), 그 범위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활용하여 ‘[,]’ 안에 제시하며, 그 사이를 구분할 때는 ‘;’를 사용한다(예 1-1 참조).

7) 표의 주

표에는 세 가지 종류의 주를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주, 상세 주, 그리고 확률 주이다. ‘일반 주’는 표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한다. 그리고 약자나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끝난다. 보통은 “주”(중고딕, 9pt)라고 시작한다. ‘상세 주’는 본문 안에 포함된 특정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활용하며, 위첨자로 표기한다. 표에 있는 둘 이상의 값들을 비교하고 차이의 유무를 표기하고자 할 때에도 상세 주를 활용한다. ‘확률 주’는 검증의 유의수준을 나타내며, 별표는 귀무가설(null hypothesis, 歸無假說)이 기각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때 정해진 수의 별표가 의미하는 확률은 한 논문 내에서 일정하도록 한다(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분명히 밝힌다). 별표의 수가 적을수록 높은 확률을 가리키도록 한다(예 * $p < .05$, ** $p < .01$, *** $p < .001$).

이상과 같은 주의 순서는 일반 주, 상세 주, 그리고 확률 주의 순서로 제시하며, 왼쪽 여백 없이 새로운 줄에 시작한다(예 1-1 참조). 특정 정보를 주에 넣을지 아니면 표의 본문에 넣을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독자들이 표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쉽도록 돕는 방식이 무엇인가’에 있다. 주는 반복 설명을 피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반복되는 값들이라면 주에 삽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반면, 확률 값이 다양하다면 주를 활용하기보다 별도의 열을 구성하여 삽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주 달기에서 주의 줄 간격은 130으로 한다.

<예> 1-1>

변인	분노 ^a		감사 ^b	
	OR	95% CI	OR	95% CI
성별				
남성	1.00		1.00	
여성	1.87	[0.94, 4.15]	2.39	[0.79, 3.42]
대처				
문제	1.40**	[1.14, 1.72]	1.59***	[1.28, 1.97]
정서	0.94	[0.74, 1.18]	0.78**	[0.65, 0.92]

주. ‘고독’과 ‘우울’에 관한 설명모형은 유의하지 않아서 제시하지 않았음. OR=odd ratio; CI=confidence interval.
^an=96. ^bn=102.
 p<.01. *p<.001.

8) 표의 테두리 및 내부 선

표에는 명확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만 선을 사용하며, 세로 선은 사용하지 않고 가로 선만을 사용한다. 보통은 선을 사용하기 보다 적절하게 여백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표에서는 세로 테두리 선 또한 사용하지 않는다. 가장 바깥 가로 선은 굵은 선을 사용하고 안쪽 가로 선은 가는 선을 사용한다(예 1-1 참조).

9) 표의 크기 및 인용

표를 읽기 위해서 논문을 돌려서 보아야 한다면 불편할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표를 학술지의 크기에 맞추어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지만 표가 크다고 해서 표 안에 쓰인 글자의 크기를 과도하게 줄여서 표를 작게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

만일 논문에 다른 학술지에 실린 표를 삽입해야 한다면 저작권에 유의하여 해당 표의 주에 원전에 관한 서지정보를 표기하고, 적절한 판권 허가 주(예,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게재 허락을 받았음’)를 표기한다(예 1-2 참조).

<예 1-2>

<표 5> 하위 요인 총점의 문항평균과 표준편차, 신뢰도(표본1)

	중고생본인			중고생부모			초등학생부모		
	<i>M</i>	<i>SD</i>	<i>a</i>	<i>M</i>	<i>SD</i>	<i>a</i>	<i>M</i>	<i>SD</i>	<i>a</i>
내성	2.0	2.2	.86	2.1	2.2	.87	2.0	2.1	.88
금단	1.7	2.0	.83	2.0	2.1	.88	1.7	1.9	.87
과도한 시간소비	3.6	2.5	.88	3.1	2.4	.88	2.9	2.2	.89
조절손상	2.4	2.5	.89	2.2	2.3	.90	1.7	2.1	.91
강박적 사용	2.1	2.2	.77	2.1	2.3	.82	1.7	2.1	.88
일상생활무시	1.4	1.7	.66	1.4	1.9	.79	1.0	1.6	.82
부작용에도 계속 사용	2.4	2.2	.73	2.3	2.2	.83	1.5	1.8	.80
총 점	15.5	12.8		15.3	13.6		12.5	12.0	

주. 김교현, 최훈석, 권선중, 용정순(2009). 한국형 아동/청소년 게임 중독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3): 521에서 인용.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게재 허락을 받았음.

10) 표에 관한 검토 사항

아래 질문을 참고하여 표의 사용 여부와 내용을 검토할 것을 권장한다(APA, 2010, p. 150).

- (1) 표가 필요한가?
- (2) 모든 표의 내용이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 (3) 제목은 간결하면서도 이해 가능한 형태로 기술되었는가?
- (4) 모든 열에 표제 단어가 제시되었는가?
- (5) 모든 약자, 밑줄, 괄호, 부호 및 특수 기호 등을 적절히 설명하였는가?
- (6) 중요 정보에 대한 신뢰구간을 표기하였는가?
- (7) 모든 확률 값 혹은 수준이 정확히 표기되었는가? 확률의 표기 방법에 일관성이 있는가?
- (8) 일반 주, 상세 주, 그리고 확률 주의 순서로 제시하였는가?
- (9) 저작권이 있는 정보를 표에 포함시켰을 경우, 인용 허가를 받고 저작권과 관련된 표기를 하였는가?
- (10) 세로 선을 제거하였는가?
- (11) 본문에서 모든 표를 언급하였는가?

2. 그림

표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도해(illustration)를 그림(figure)으로 볼 수 있다. 좋은 그림의 기준은 단순성, 명료성 그리고 연계성이다. 글이나 표로는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핵심 정보를 명료하게 드러내는 도해가 잘 만들어진 그림이다. 해당 정보가 이미 본문에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시각적 효과를 노리거나 연구 결과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림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 그림의 종류

사진 이외에도, 변수들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서 변수의 특징(빈도, 비율, 평균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그래프나 산포도, 차트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대표적인 그림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사진은 연구에 사용된 시각적 자극이나 실험 환경, 개입 과정, 결과(예 뇌 영상)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2) 선 그래프는 양적인 변인 간의 관계를 보여줄 때 사용하는데, 독립변인은 가로축에 종속변인은 세로축에 그린다.

(3) 막대그래프는 독립변인이 범주 변인일 경우에 사용한다.

(4) 원(또는 부채꼴) 그래프는 비율을 보여줄 때 사용한다. 비교할 항목은 가능한 다섯 개 이하를 유지한다. 그리고 제일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12시 방향부터 시작하여 시계 방향으로 제시한다. 중요한 차이를 보여주기 위하여 큰 영역부터 밝은 색에서 시작해서 어두운 색으로 채색한다.

(5) 산포도는 개별 연구 대상으로부터 측정한 2개 이상의 자료(예 한 개인의 몸무게와 키)를, 축(예 세로축과 가로축)을 활용하여 직접 표기할 때 사용한다. 이 그림은 변인 간의 관계(예: 선형적 관계)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6) 차트는 집단 또는 대상간의 관계, 실험 혹은 개입 과정, 세부적인 조작 순서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2) 그림의 준비

그림은 보통 전문가에게 부탁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만들게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흑백인쇄가 될 경우 구분이 어려운 지나친 특수효과나 색 활용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술지의 경우 모든 인쇄는 흑백인쇄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림을 준비한다.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예 한글)에서 직접 만들지 않고 외부에서 그림 파일을 복사해 올 경우에는, 흑백 레이저 프린터(최소 300 dpi)를 사용하여 출력한 후 이를 복사했을 때에도 잘 읽을 수 있는 정도의 해상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림에 문자를 포함시켰을 경우, 출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 축소시키더라도 읽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당한 크기로 표기해야 하며, 특히 첨자를 사용했을 경우 그 크기에 주의해야 한다.

3) 그림 만들기

(1)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사진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그려야 할 경우에는 밝은 백색지를 사용한다.

(2) 가로, 세로축은 굵은 선을 사용한다.

(3) 세로축의 길이는 가로축의 3/4에서 2/3 정도로 한다.

(4) 적절한 격자 눈금을 덧붙인다. 적절한 범위를 사용하여 전체 표에 자료가 나타나도록 하며, 만일 0에서 시작하는 그래프가 아닌 경우에는 이중 사선으로 축을 끊는다. 축의 명칭과 단위를 붙인다.

(5) 사진의 경우는 가능한 한 흑백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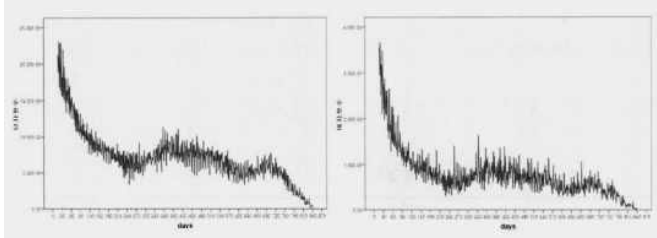
한데, 만일 칼라 필름을 사용할 경우 흑백 인화지로 현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6) 그림은 본문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빠짐 없이 번호를 표기한다.

(7) 범례(legend)는 그림 안에 사용된 기호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림 안에 위치시킨다. 범례는 그림과 통합된 정보이므로, 그림 간 범례 양식(예 글자 종류 및 크기)을 통일한다. 사용된 범례가 본문의 기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8) 그림설명(caption)은 일차적으로 그림의 제목을 의미하며 그림 아래에 표기 되어 있는 번호에 이어서 기술한다. 중고딕 10포인트 크기로 쓰며, 독자가 그림 자체만으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야 한다. 만일 저작권이 있는 타인의 그림을 인용할 경우 원전에 관한 서지정보를 표기하고, 적절한 판권 허가에 대한 설명(예,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게재 허락을 받았음')을 표기한다. 또한 그림 내에 통계적 유의수준을 표기했다면, 그림 설명에 그 확률값을 기록한다. 그림설명에 여러 정보가 포함된다면, 제시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그림 자체에 대한 설명, ② 원전에 관한 서지정보 및 판권 허가에 대한 설명, ③ 확률값 표기 기호에 대한 설명(예, * $p<0.05$, ** $p<0.01$, *** $p<0.001$).

<예 1-3>



<그림2> 남자와 여자의 이용일수에 따른 베팅횟수 추세.

이충기, 권선중, 이태경, 김교현 (2010). 합법 인터넷 도박 이용자의 도박행동 추세.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2), p. 207에서 인용.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게재 허락을 받았음.

4) 그림 사용을 위한 검토 사항

아래 질문을 참고하여 그림의 사용 여부와 내용을 검토할 것을 권장한다(APA, 2010, p. 167).

- (1) 그림이 필요한가?
- (2) 그림은 단순하고 명료하며 군더더기가 없는가?
- (3) 그림설명에는 그림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있는가?
- (4) 그림의 각 요소에 명칭이 부여되어 있는가?
- (5) 그림에 포함된 척도나 단위 등에 명칭이 부여되어 있는가?
- (6) 동일한 개념을 다루는 그림들 간에 척도나 단위 등을 통일시켰는가?
- (7) 모든 그림에 아라비아 숫자로 번호를 부여했는가?
- (8) 모든 그림을 본문에 언급했는가?
- (9) 다른 데서 인용한 그림의 경우 저작권과 관련된 문구를 삽입

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았는가?

- (10) 편집 과정에서 그림이 변형되지 않도록 조치했는가?
- (11) 글자는 25~50% 정도 축소해도 읽을 수 있을 만큼 큰가?
- (12) 그림 파일의 해상도는 충분히 높은가?

III. 참고자료 목록 표기 방식

참고자료는 논문작성을 위해 참고하거나 인용한 자료를 일정한 형식에 맞게 제시한 목록을 말한다. 참고자료는 다른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본문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참고자료에 포함된 정보의 모든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으며 정확하게 기재된 참고자료는 연구자로서의 신용도를 높인다.

참고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은 학문분야, 학술단체, 출판사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 외국 출판물인 경우는 미국심리학회(APA) 방식을 많이 사용하나 국문 참고자료의 기술형식은 학술단체마다 작성방식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대학 사회과학계열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의 참고자료 작성을 위한 공통된 지침이 필요하며 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기본형식

일반적으로 참고자료는 논문의 끝부분에 제시한다. 참고자료 목록은 다른 독자 및 연구자들이 인용 자료를 인출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자, 출판연도, 제목, 권수, 페이지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이 때 유의해야 하는 점은 논문에서 인용하거나 언급한 자료

에 대해서만 기재해야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작성을 위한 문단모양 설정을 위해서는 우리 학교의 기본 양식 <그림 10>을 참고하기 바란다(83쪽).

1) 순서

(1) 참고자료 작성 시 국내 자료는 저자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외국자료는 다음에 제시하되 알파벳순으로 한다.

(2) 동일한 저자명의 서로 다른 연구는 출판연도가 빠른 순으로 하고 최근 논문을 뒤에 배열한다.

예1 홍길동(2014).

홍길동(2015).

예2 Beck, A. T.(1967).

Beck, A. T.(1987).

(3) 동일 저자의 단독 연구와 공동연구가 있을 경우는 단독 연구를 앞에 배열하고 공동 저자수가 많은 것은 뒤에 배열한다.

예1 홍길동(2015).

홍길동, 김하나, 김이나(2009).

예2 Beck, A. T.(1987).

Beck, A. T., Kovacs, M., & Weissman, A.(1979).

(4) 동일 저자들이 동일 연도에 출판한 참고자료가 2편 이상일 때는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대로 출판연도 뒤에 영문자 a, b, c 등을 부기하여 구분하고 차례대로 기재한다.

예1 홍길동(2015a). 홍길동(2015b).

예2 Baheti, J. R.(2001a). Control ...
Baheti, J. R.(2001b). Roles of ...

2) 약자

참고자료 목록에서 쓸 수 있는 약자들은 다음과 같다.

약자	서적 또는 출판 부분
ed.	Edition
Rev. ed.	Revised edition
2nd ed.	Second edition
Ed. (Eds.)	Editor (Editors)
Trans.	Translator(s)
n.d.	no date
p. (pp.)	page (pages)
vol.	Volume (as in Vol. 4)
vols.	Volumes (as in Vols. 1-4)
No.	Number
Pt.	Part
Tech. Rep	Technical Report
Suppl.	Supplement

3) 아라비아 숫자

서적 및 학술지의 권수는 로마체가 아닌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예로 ‘vol. II’가 아니라 ‘vol. 2’를 사용한다. 단, 제목의 일부인 로마체 숫자는 그대로 표기한다(예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 II).

4) 두 줄 이상인 자료

참고자료 목록에 들어갈 자료 가운데 두 줄 이상이 요구되는 자

료는 두 번째 줄부터 다섯 칸을 들인 후 여섯 칸부터 쓴다.

2. 참고자료 목록의 구성요소

참고자료 목록에는 저자, 출판일, 제목, 출판정보(학술지명, 권, 호, 페이지)로 구성된다.

1) 저자 및 편집자 정보

(1) 저자

국내 저자명은 성과 이름을 띄어 쓰지 않으며 영문이름은 저자의 성(last name)을 먼저 쓰고, 이름(first name)의 머리글자 순서대로 기록하되 성 다음에 쉼표(.)를 찍는다.

국내자료의 저자수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쉼표(.)를 찍으며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한다.

영문자료인 경우는 저자수가 2인에서 7인일 때, 저자명 사이에 쉼표(.)를 찍고 맨 끝 저자명 앞에 앰퍼샌드(&)를 붙인다.

저자가 8인 이상인 경우는 앞의 6인의 저자명을 쓰고, 세 개의 말줄임표(...)를 찍은 다음, 맨 끝에 저자명을 붙인다.

예1 홍길동, 김하나, 김이나(2009).

예2 Abramson, L. Y., Metalsky, G. I., & Alloy, L. B.(1989).

예3 Gilbert, D. g., McClemon, J. F., Rabinovich, N. E., Sugai, C., Plath, L. C., Asgaard. G., ... Botros, N.(2004).

협회나 정부기관 같은 집단저자는 기관명의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되 기관이나 단체의 전체 이름을 쓴다. 대학의 경우도 ‘침신대’라고 쓰지 않고 ‘침례신학대학교’로 전체 기관명을 적는다.

예4 침례신학대학교(2015).

예5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2015).

예6 University of Michigan, Department of Social Work(2015).

(2) 편집자 및 번역자

편집된 서적이거나 저서에 포함된 단일 논문을 인용한 경우, 인용한 장(章)의 저자명, 출판연도, 장의 제목, 전체 책을 엮은 편집자 성명, 편집(편)/저서(저), 책 제목, 해당 페이지, 출판지: 출판사 순으로 적는다.

예1 조영훈(2002). 생산적 복지론과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김연명(편).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 I** (pp. 81-108). 서울: 인간과 복지.

영어의 편집자명 앞에는 In을 넣으며, 편집자가 복수일 경우 Eds.로 표기하고 단독일 경우 Ed.로 적는다. 편집자명은 이름(first name)을 먼저 쓰고 성(last name)을 나중에 쓴다. 편집된 논문의 기본 표기 형태는 아래와 같다.

예2 Alloy, L. B., Clements, C., & Kolden, G.(1985). The cognitive diathesis-stress theories of depression: Therapeutic implications. In S. Reiss & R. Bootzin (Eds.), *Theoretical issues in behavior therapy* (pp. 379 - 410). New York: Academic Press.

외국서적을 번역한 경우, 역자명을 적고 ‘역’으로 역서임을 표시한다. 번역서는 번역자, 출판연도, 번역서명, 원저자명, 원전 출판연도, 원전 제목, 출판지: 출판사 순으로 적고 번역서명만 **볼드(bold)** 처리한다.

예3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2005). **질적연구방법론**. Creswell, J. W., 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서울: 학지사.

2) 출판일

저작물의 출판연도는 소괄호 안에 제시하되, 잡지, 신문 등은 출판연도와 월일을 정확하게 기입한다. 출간일이 계절로 표시된 경우는 연도와 계절을 소괄호에 묶어 제시한다.

예1 Myers, D. G.(2004, Summer).

예2 Schwartz, J.(1993, September 30).

예3 김승진(2016. 5. 21).

3) 제목

국내 저서명은 진한 신명조체로 제시하며, 외국 저서명은 진하지 않은 이탤릭체로 하며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국내 학술지, 연구보고서, 신문, 학위논문, 편서 및 저서에 포함된 단일 논문 및 장(章)의 제목과 외국 학술지의 논문제목, 홈페이지 및 잡지 기사명은 신명조로 하며 큰따옴표를 붙이지 않는다.

예1 김영종(2013).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서울: 학지사.

예2 Barnes, H., & Olson, D. H.(1985). 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Family Welfare*. 4(5): 344-45.

4) 출판정보

(1) 정기간행물

국내문헌의 정기간행물의 이름(학술지, 뉴스레터, 잡지 등)은 큰따

음표(“ ”)를 붙이지 않으며 진한 글씨체를 사용한다. 외국문헌의 정기간행물은 진하지 않은 이탤릭체로 제시하며 간행물명의 모든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한다.

국내외의 정기간행물의 권수 앞에는 Vol. 표시는 하지 않으며, 권수와 호수는 함께 제시한다. 10권 2호인 경우 10(2)로 표기한다.

정기간행물의 출판사명과 소재지는 일반적으로 참고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정기간행물의 페이지는 pp.를 사용하지 않고 xx-xx로 표기한다. 단, 편집저서에 포함된 단일 논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해당 쪽수를 pp.로 표시한다. 일정 구간의 모든 페이지를 제시할 때는, 두 번째 페이지 숫자는 첫 번째 페이지 숫자에서 바뀐 자릿수 이하만을 표기한다.

- 예1 이현주(2015).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자활기업의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사회과학연구**. 42(3): 57-83.
- 예2 김문영(2000). Ageism을 통해 본 노인차별에 관한 고찰. **정신간호학회지**. 9(4): 515-23.
- 예3 Mayer, R.(1982). Social planning as social work practice: Issues and strategies.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6(2): 49-61.

(2) 비정기간행물

비정기간행물(서적, 보고서 등)은 출판사의 소재지를 제시하고, 콜론(:)을 붙인 후 출판사명을 간결하게 제시한다. 출판사명 뒤에는 Publishers, Co., Inc. 등의 용어는 생략하지만 Books와 Press 같은 단어는 그대로 제시하며, 비정기간행물의 페이지는 제시하지 않는다.

- 예1 김영종(2013).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서울: 학지사.
- 예2 Lind, E. A., & Tyler, T. R.(1988). *The social psychology of procedural justice*. NY: Plenum.

5) 디지털 출처 및 검색 정보

인터넷상의 디지털 정보를 참고자료에 기재할 때는 웹 검색된 페이지의 URL을 기재하거나 DOI를 제시한다. URL은 인터넷 주소창의 <http://>로 시작되며 파일의 위치를 알게 한다. 그러나 URL은 인터넷이 재구조화되면서 작동되지 않거나 자료가 삭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학술지 발행기관들은 DOI 시스템을 개발하여 디지털 네트워크상의 정보관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DOI에는 디지털 콘텐츠 소유자 및 제공자를 비롯해 데이터에 관한 각종정보가 입력되어 있어 디지털 콘텐츠의 주소나 위치가 바뀌어도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어 참고자료에 포함시키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DOI가 제시된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어린이 독서프로그램의 성과 측정 도구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ing and Applying a Tool for Measuring Achievements of Reading Programs for Children

정보관리학회지

약어 : JKOSIM

2014, vol.31, no.1, pp. 7-29 (23 pages)

DOI: 10.3743/JKOSIM.2014.31.1.007

발행기관 : 한국정보관리학회

연구분야 : 복합학 > 문헌정보학

3. 대표적인 참고자료 목록 사례

참고자료 목록 기재요령에 따라 대표적인 사례들을 단행본, 정기간행물,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학술대회, 시청각 매체, 인터넷 자료 등으로 분류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단행본

- 예) 저자(출판연도). **저서명**. 출판지: 출판사.
- 예) 저자 역(출판연도). **번역 서명**. 원저자, 원저 출판연도, 원저 제목. 출판지: 출판사.
- 예) Author, A. A.(publish year). *Title*. Location: Press.
- 예) Author, A. A.(publish year). Title of chapter. In E. E. Editor (Ed.), *Title of book*(pp. xx-xx). Location: Publisher.

- 예1 정승태(2011). **디펜시오 크리스티아누스: 지성을 추구하는 신앙**. 대전: 하기서원.
- 예2 박현수 역(1991). **거대한 변환: 우리 시대의 정치적·경제적 기원**. Polanyi, K., 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서울: 민음사.
- 예3 Mackie, J. L.(1990). *The miracle of theism: Arguments for and against the existence of Go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예4 Canetto, S. S.(1997). Gender and suicidal behavior: Theories and evidence. In R. W. Maris, M. M. Silverman, & S. S. Canetto(Eds.), *Review of suicidology*(pp. 138-67). New York: Guilford.

2) 정기간행물

(1) 국내 학술지

- 예) 저자(출판연도). 논문주제. **학회지**. 권(호): xx-xx.

- 예1 김용국(2015). 미국 남부 아프리카계 침례교회 발전사. **복음과 실천**. 56: 151-82.
- 예2 김연규, 김성한(2016). 사회복지 프로그램 목표설정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8(1): 87-106.

(2) 국외 학술지

- 예) Author, A.(publish year). Title of thesis. *Journal name*. vol.: xx-xx.

- 예1 Mayer, R.(1982). Social planning as social work practice: Issues and strategies.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6(2): 49-61.
- 예2 Foster, T., Gillespie, K., & McClelland, R.(1997). Mental disorders and suicide in Northern Ireland.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0: 447-52.

(3) 신문 및 잡지기사

신문기사는 기고자의 이름, 발행 일자, 기사명, 신문명, 기고면 순으로 표기한다. 만약, 기사를 쓴 사람이 신문편집부인 경우 발행된 신문이름을 기고자의 이름에 위치시키고, 신문명은 생략한다. 국내 신문의 신문명은 진한 글씨체로 쓰고 외국 신문의 경우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예) 기고자(발행 일자). 기사명. **신문명**. x면.
- 예) contributor(date of publication). Title of news. *Newspaper*. p. Ax.

- 예1 김승진(2016. 5. 21). 16세기 종교개혁운동과 침례교회. **침례신문**. 7면.
- 예2 침례신문(2016. 5. 21). 서울광장서 퀴어축제 반대. 2면.
- 예3 Schwartz, J.(1993, September 30). Obesity affects economic, social status. *The Washington Post*. pp. A1, A4.

잡지기사도 신문과 표기 형태가 유사하나 권 호수와 페이지를 부가적으로 표기한다. 잡지명은 진한 글씨체로 쓰고 호수 다음에 콜론(:)을 찍고 페이지를 기재한다.

- 예4 김정봉(2016). 하나의 믿음 고백. **백티스트** 141: 22-27.

3) 미 간행물

(1) 연구보고서

발행기관이 보고서에 번호를 배정했다면, 그 번호를 제목 다음에 소괄호 안에 제시한다.

예) 저자(발행연도). 보고서 제목 (연구보고서 xxxx-xx). 발행지: 발행처

예1 김기수, 오인근, 오미애, 주은주, 김현진(2014). 2014년 대전광역시 노인 실태조사 (정책연구 2014-4). 대전: 대전복지재단.

(2) 학위논문

예) 저자(발행연도). 논문 제목. 학위대학 석/박사논문.

예) Author, A. A.(publish year). *Title of thesis. Degree.* University. Country.

예1 김혜숙(2007). 자전적 글쓰기 교육과정을 통한 여성주의 기독교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예2 Lee, Audra(2009). *Antecedents of commitment to and support of a proposed change initiative in a southern baptist congrega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Texas. USA.

(3) 학술대회

예) 저자(발행연도). 발표 제목. 학술대회명 “**전체 주제,**” xx-xx, 발표일. 지역: 장소

예1 조학래(2012). 사회복지현장에서의 기독교사회복지재단의 현재와 전문성 향상 방향.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창립1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 기독교 사회복지재단의 현황과 지구촌사회복지재단의 향후과제,**” 43-54, 8월 3일. 경기: 분당노인종합복지관 강당.

예2 정순돌(2015).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행동결정 모델. 한국노인복지학회 국제추계학술대회 “**한국베이비부머의 은퇴준비,**” 5-21, 11월 20일. 구미: 금오산 호텔.

4) 기타 자료

(1) 시청각 매체

시청각 매체에는 영화, 오디오, 텔레비전 방송, 사진 등이 포함된다. 시청각 매체자료의 기본적인 표기 형태는 다음과 같다.

예) Producer, A. A., & Director, B. B.(연도). 시청각 제목 [Motion picture].
Country of Origin: Studio.

예1 권혁만(2016). 일사각오 [영화]. 서울: KBS.

예2 Cameron, J.(1998). *Titanic* [DVD]. Los Angeles: Twentieth Century Fox.

예3 Helvering, S. P., & Nelson, G.(1981). It is well with my soul. On Sandi Patti [CD]. Vancouver: Helvering Productions.

(2) 인터넷 자료

참고자료에 DOI가 있는 경우는 DOI를 포함시키고, DOI가 없는 경우는 URL을 포함시킨다.

예) 참고자료 기존형식 doi:10.xxxxx.

예) 참고자료 기존형식 Retrieved from <http://www.xx>

예) 참고자료 기존형식 Retrieved from <http://xx>

예1 Herbst-Damm, K. L., & Kulik, J. A.(2005). Volunteer support, marital status, and the survival times of terminally ill patients. *Health Psychology*. 24: 225-29. doi:10.1037/0278-6133.24.2. 225.

예2 Clay, R.(2016, January). A new look at racial and ethnic disparities in mental health care. *Monitor on Psychology*. 47(1). Retrieved from <http://www.apa.org/monitor/>

예3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planning and evaluation(2016). Poverty guidelines. Retrieved from <https://aspe.hhs.gov/poverty-guide/lines/>

예4 U.K.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2016). New burdens payment 2016/17 for the pension credit assessed income period reform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25621/s6-2016.pdf.

(3) 웹사이트

웹사이트의 참고문헌 표시는 웹사이트 제목과 자료의 제목, 게시 연월일, URL 순으로 기록하고, 마침표로 구분한다.

예 웹사이트 제목. **자료의 제목**. 접속 연월일, URL.

예 웹사이트 제목. **자료의 제목**. 출판/개정/수정 연월일, URL.

예1 한국침례신학대학교. **2006~현재**. 2021년 4월 17일 접속, https://www.kbtus.ac.kr/kor/CMS/HistoryMgr/list.do?itemcode=CDE_000023&mCode=MN031.

예2 위키디피아: 우리모두의 백과사전. **침례신학대학교**. 2021년 1월 21일 수정, <https://ko.wikipedia.org/wiki/%EC%B9%A8%EB%A1%80%EC%8B%A0%ED%95%99%EB%8C%80%ED%95%99%EA%B5%90>.

(4)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의 인용 자료는 논증을 위한 핵심자료를 제외하고는 참고문헌에 기록하지 않는다. 다만, 블로그는 기록한다. 참고문헌의 구성요소는 게시자, 제목, 소셜 미디어 유형, 게시 연월일, URL 순으로 기록한다. 항목의 구분은 마침표로 하며 소셜 미디어 제목, 최종 게시 연월일 그리고 URL은 쉼표로 구분한다.

류호준. “유대교를 거울삼아 한국 개신교를 들여다본다.” **류호준 교수의 무지개성서교실**, 2020년 8월 31일, <https://rbc2000.pe.kr/essay/71523>.

Williams, Joshua E. “The Deuteronomic History and the Book of Chronicles.” *The Blog of Joshua E. Williams: Public Space of an Old Testament Prof.* accessed April 17, 2021, <https://joshuaewilliam.wordpress.com/2020/05/29/the-deuteronomic-history-and-the-book-of-chronicles/>.

4부 부록

〈부록 6〉 연구계획서 제목표지의 예
(A4용지, 행간 230, 신명조 12pts체)

←

2줄 종말론과 사회윤리의 관점에서 본
3줄 Moltmann과 Mouw의 비교

←

←

6줄 -----

←

←

9줄 이 석사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한국침례신학대학교
10줄 신학대학원에 제출함

←

←

13줄 -----

←

←

16줄 이는 신학석사 학위를
17줄 이수하기 위한 것임

←

←

20줄 -----

←

←

23줄 제출자: 한 석 봉

24줄 2021년 3월 30일

〈부록 7〉 목차 페이지의 예

목차

} 3행간

감사의 글	iii
목차	v
표목차	v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배경	3
I. 인간론의 역사적 배경	16
1. 인간론에 대한 역사적 개관	16
1) 교부시대의 인간 이해	16
(1) Clement의 인간 이해	18
(2) Origen의 인간 이해	20
2) 종교개혁 시대의 인간 이해	22
(1) Luther의 인간 이해	23
(2) Calvin의 인간 이해	26
2. 하나님 중심의 인간론	30
(중략)	
II. 초기 남침례교의 인간론	58
1. 신학적 배경	58
1) 시대 상황	59

(후략)

〈부록 8〉 사변적 방법에 의한 논문의 장별 구성의 예

제목: 종말론과 사회윤리의 관점에서 본 Moltmann과 Mouw의 비교

서론

1. 연구목적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I. 종말론과 기독교인의 삶

1. 종말론과 윤리학
2. 종말, 창조 그리고 사회윤리

II. Moltmann의 창조, 종말 그리고 사회윤리

1. 미래로 열려진 창조
2. 새로운 창조로서의 종말
3. 현 세상의 비판과 변혁으로서의 사회윤리

III. Mouw의 창조, 종말 그리고 사회윤리

1. 선하게 창조된 창조
2. 창조의 회복과 완성으로서의 종말
3. 세상을 건설하고 다스리는 사회윤리

IV. Moltmann과 Mouw의 신학 윤리학의 패러다임 분석

1. Moltmann의 종말론적 신학 윤리학
2. Mouw의 창조론적 윤리학

결론: 종말론과 사회윤리 그리고 한국교회

1. 두 신학 윤리학의 요약과 과제
2. 한국교회 종말신학과 윤리적 태도

참고자료

국문(영문)초록

〈부록 9〉 실증적 방법에 의한 논문의 장별 구성의 예 A

제목: 성인진입기에 발생하는 교육적 필요에 대한 조사연구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 중요성
3. 연구 제한점
4. 용어 정의

I. 문헌고찰

1. 현대사회의 특성과 성인교육의 필요성
2. 성인진입기의 발달이론과 기독교교육
3. 성인기독교교육의 현실과 전망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자
2. 조사도구
3. 조사절차
4. 자료분석

III. 결과의 분석과 논의

1. 조사 대상자의 전반적인 배경 특징
2. 교육내용의 각 차원에 따른 필요도
3. 교육내용의 전체적인 교육적 필요 분석

결론

1. 요약
2. 결론 및 제언

참고자료

국문(영문)초록

〈부록 10〉 실증적 방법에 의한 논문의 장별 구성의 예 B

제목: 사회복지사가 지각한 직무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3. 연구의 제한점

I. 문헌고찰

1. 기관의 특성비교
2. 조직몰입
3. 직무특성
4. 직무특성과 조직몰입의 관계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도구
3. 조사대상자 선정 및 자료수집
4. 자료분석

III.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사회복지사가 인식하는 직무특성과 조직몰입수준
3. 복지관 유형별 직무특성과 조직몰입 수준
4.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분석
5. 직무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연구의 함의
3.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부록 1> 설문지

참고자료

국문(영문)초록

〈부록 11〉 참고자료 목록의 예

I. 신학계열

참고자료 목록

3행간 {

1. 단행본 } 2행간

김란수 외 8인. **전환기의 지성**. 서울: 도서출판 나남, 1992.

김용선, 강만철.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서울: 동문사, 1987.

김재은. **사색의 길목에서**. 출판지 불명: 출판사 불명, 출판연도 불명.

배현철. **인간의 위대한 질문**. 서울: 21세기북스, 2015.

사미자. “노년의 심리.”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편, 59-79.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허 긴. **한국침례교회사**.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1999.

김경옥. **문화와 영성: 잘못 끼워진 컵 단추** (서울: 요단출판사, 2019). Part III
하나님: 잘못 이해된 하나님관과 영성.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전자책
도서관.

井上勝也. **노년기의 임상심리학**. 송대현 역. 서울: 성원사, 1988.

Coleman, Lucien E., Jr. *Understanding Today's Adults*. Nashville: Convention Press, 1982.

Harris, Diana K. and William E. Cole. **노년사회학**. 최신태 역. 서울: 경문사, 1985.

Atchley, Robert, ed. *Social Forces and Aging: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4th ed.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1985.

_____. “Adults Are the Church Now.” *A Church Ministering to Adults*. Ed. & comp. Jerry M. Stubblefield, 278-83. Nashville: Broadman Press, 1986.

Stuart, Douglas and Gordon D. Fee. **성경해석 방법론**. 김의원 역. 서울: 기

독교문서선교회, 1987.

George, Timothy. **개혁자들의 신학**. 이은선, 피영민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4.

Komatose, Max, et al. *Ensemble Acting in the Off-Loop Theaters of Chicago*. Toledo: Wright-Smart Press, 1995.

Singer, Isaac Bashevis. *Writers at Work*. n.p.: n.p., n.d.

} 3행간

2. 정기간행물

김승진. “미국의 대표적인 침례교 신앙고백들.” **복음과실천** 22집 (1998 여름): 121-58.

김은수. “에큐메니칼 선교와 복음주의 선교: 1973년 방콕 세계선교대회와 1974년 로잔 국제복음화대회를 중심으로.” **신학사상** 98집 (1997 가을): 43-70.

김종열. “한국 교회의 귀족화 현상.” **기독교사상**, 1973년 6월, 45-56.

모선희. “가족내에서 노인의 의사결정권.” **한국노년학** 11권 1호 (1991): 50-60.

박원호. “성서교육과 신앙의 구조형성.” **교회와 신학** 25집 (1993): 533-58.

박홍수. “통일논의 신중하게 하자.” **주간조선**, 1988년 7월 31일, 24-25.

Harding, D. W. “Regulated Hatred: An Aspect of the Work of Jane Austen.” *Scrutiny* vol. 8 (March 1940): 340-55.

Principe, Walter. “Toward Defining Spirituality.” *Studies in Religion* vol. 12, no. 2 (1983): 127-41.

Fisher, Anne. “Ford Is Back on the Track.” *Fortune*, 23 December 1985, 18-19.

Schneiders, Sandra M. “Theology and Spirituality: Strangers, Rivals, or Partners.” *Horizons* vol. 13, no. 2 (1986): 253-74.

} 3행간

3. 미간행물

공도원. “교회 성장에 있어서 제자훈련이 미치는 영향 고찰.”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93.

김광모. “마가의 서사적 기독론: 서술자의 인물구성에 입각한 내포독자의 메시아 상 재구성 과정 분석.” 박사학위논문,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2002.

권지성. “공개입양가족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3.

Artioli, Gilberto. “Structural Studies of the Water Molecules and Hydrogen Bonding in Zeolites.” Ph.D. diss., University of Chicago, 1985.

} 3행간

4. 기타 자료

김상구. “탈무드란?” [온라인 자료] <http://kcm.co.kr/mishnah/tm01.html>. 2000년 1월 10일 접속.

남용희. 연구자와 면담, 1997년 7월 15일, 울릉도 서달교회당. 녹음파일 34-A.

Baker, Joanne C. Baker and Richard W. Hunstead. “Revealing the Effects of Orientation in Composite Quasar Spectra.” *Astrophysical Journal* [온라인 학술지] (October 1995): 220-30. <http://www.aas.org/ApJ/v452n2/5309/5309.html>. 1995년 9월 29일 접속.

Beevis, D. “Ergonomist's Role in the Weapon System Development Process in Canada.” Downsview, Ont.: Defence and Civil Institute of Environmental Medicine, 1983. NTIS, AD-A145 5713/2. Microfiche.

Lanham, Richard D. *The Electronic Word: Democracy, Technology, and the Arts* [디스크].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Mitchell, William J. *City of Bits: Space, Place, and the Infobahn* [온라인 단행본]. Cambridge, Mass.: MIT Press, 1995. http://www.mitpress.mit.edu/80/City_of_Bits/Pulling_Glass/index.html. 1995년 9월 29일 접속.

Robson, Barbara. *Tanzania: Country Status Report*. Washington, D.C.: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Language/Area Reference Center, 1984. ERIC, ED

248700.

Rudolf, Linda B. "The Impact of the Divorce Process on the Family." Paper Presented at the Twenty-ninth Annual Meeting of the South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23-26 March 1983. EDRS, ED 233277. Microfilm.

Toner, Robin. "Senate Approves Welfare Plan That Would End Aid Guarantee." *New York Times*, 20 September 1995, national ed., A2. *New York Times OnDisc* [CD-ROM]. UMI-Proquest, December 1995.

Roemer, Merle A. Interview by Author. 26 July 1973. Millington, Md. Tape Recording.

동성애 그 무서운 진실, 2편. "동성애의 비밀스러운 움직임 퀴어 신학." 2020년 11월 30일. CGNTV. <http://www.cgntv.net/tv/36083/20404254/vlist.cgn>.

II. 사회과학계열

참고자료 목록

1. 단행본

권선중, 민윤기, 석동헌, 심은정, 이민규, 최성진(2012). **학술논문작성 및 출판지침**. 서울: 박영사.

김기수, 오인근, 오미애, 주은주, 김현진(2014). 2014년 대전광역시 노인 실태조사 (정책연구 2014-4). 대전: 대전복지재단.

김태성, 김진수(2003). **사회보장론**. 서울: 청목출판사.

정승태(2011). **디펜시오 크리스티아누스: 지성을 추구하는 신앙**. 대전: 하기서원.

조영훈(2002). 생산적 복지론과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김연명(편).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I** (pp. 81-108). 서울: 인간과 복지.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역(2005). **질적연구방법론**. Creswell, J. W., 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서울: 학지사.

- Glass, G. V., Barry, M., & Mary, L. S.(1981). *Meta-analysis in social research*. Beverly Hills. Calif.: Sage.
- Piven, F. F., & Mary, L. S.(1981). *Regulating the poor: The functions of public welfare*. New York: Vintage Books.
- Alloy, L. B., Clements, C., & Kolden, G.(1985). The cognitive diathesis-stress theories of depression: Therapeutic implications. In S. Reiss & R. Bootzin (Eds.), *Theoretical issues in behavior therapy* (pp. 379 - 410). New York: Academic Press.
- Berlin, S.(2002). *Clinical social work practice: A cognitive-integrative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 정기간행물

- 박성혜, 박은주(2014). 유아교사의 교직적성과 행복감과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8(6): 165-90.
- 이춘자(2015). 예비유아교사의 음악지식 및 음악교수 불안이 유아음악교육 신념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4(4): 229-46.
- 정순돌(2015).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행동결정 모델. 한국노인복지학회 국제추계학술대회 “한국베이비부머의 은퇴준비,” 5-21, 11월 20일. 구미: 금오산 호텔.
- Biehal, N.(1993). Changing practice: Participation, rights and community car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23: 443-58.
- Arksey, H., & Glendinning, C.(2007). Choice in the context of informal care-giving. *Health &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15(2): 165-75.

3. 미간행물

- 김혜숙(2007). 자전적 글쓰기 교육과정을 통한 여성주의 기독교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Lee, Audra(2009). *Antecedents of commitment to and support of a proposed change initiative in a southern baptist congrega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Texas. USA.

4. 기타 자료

김승진(2016. 5. 21). 16세기 종교개혁운동과 침례교회. **침례신문**. 7면.

Schwartz, J.(1993, September 30). Obesity affects economic, social status. *The Washington Post*. pp. A1, A4.

Cameron, J.(1998). *Titanic* [DVD]. Los Angeles, LA: Twentieth Century Fox.

Clay, R.(2016, January). A new look at racial and ethnic disparities in mental health care. *Monitor on Psychology*. 47(1). Retrieved from <http://www.apa.org/monitor/>

한국침례신학대학교. **2006~현재**. 2021년 4월 17일 접속, https://www.kbtus.ac.kr/kor/CMS/HistoryMgr/list.do?itemcode=CDE_000023&mCode=MN031.

류호준. “유대교를 거울삼아 한국 개신교를 들여다본다.” **류호준 교수의 무지개성서교실**, 2020년 8월 31일, <https://rbc2000.pe.kr/essay/71523>.

〈부록 12〉 신학계열 주요 각주 및 참고자료 목록 게재 형식 대조표

단행본	각주
단일저자	1) 한철흠, 주제로 읽는 요한계시록 (서울: 영성, 2020), 78-79.
2인 이상 저자	2) 김태식·오지원, 한국침례교회 100년의 향기 (서울: 누가, 2020), 128-29. 3) Stephen Evans and Zachary Manis, 종교철학: 기독교 신앙의 철학적 조명 , 정승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6), 302-303. 4) 이현모 외 5인, 와이 미션?: 하나님을 기쁘게, 열방이 주를 기뻐하게 (서울: 두란노서원, 2015), 83. 5) Max Komatose et al., <i>Ensemble Acting in the Off-Loop Theaters of Chicago</i> (Toledo: WrightSmart Press, 1995), 41.
편집자 혹은 번역자	6) 김승혜 편, 종교학의 이해: 종교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서울: 분도출판사, 1986), 263. 7) Donald Wayne Viney and Jincheol O, eds., <i>Creative Experiencing: A Philosophy of Freedom</i> (New York: SUNY Press, 2011), 103-104. 8) 로버트 벵크스, 바울의 공동체 사상 , 장동수 역 (서울: IVP, 2007), 256-58. 9) 리언 맥베스, 침례교회의 역사와 유산 , 김용국 외 역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13), 200-202. 10) 데이비드 알렌, 프리칭틀스 , 임도균 외 번역 (서울: 디사이플, 2019), 76. 11) Ernst Käsemann, <i>On Being a Disciple of the Crucified Nazarene</i> , trans. Roy A. Harrisville (Grand Rapids: Eerdmans, 2010), 102-108.
출판지 불명	12) 김재은, 사색의 길목에서 (출판지 불명: 출판사 불명, 출판연도 불명), 121. 13) Isaac Bashevis Singer, <i>Writers at Work</i> (n.p.: n.p., n.d), 56-58.
관수	14) Atchley Robert ed., <i>Social Forces and Aging: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i> , 4th ed.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1985), 143. 15) 김선배, 신약성경 올레길 , 개정판 (서울: 요단출판사, 2016), 152.

단행본	참고자료
단일저자	<p>안희열. 바울, 교회에서 길을 찾다. 서울: 두란노서원, 2021.</p> <p>Cho, Dongsun. <i>St. Autustine's Doctrine of Eternal Punishment: His Biblical and Theological Argument</i>. Lewiston: The Edwin Mellen Press, 2010.</p>
2인 이상 저자	<p>김태식·오지원. 한국침례교회 100년의 향기. 서울: 누가, 2020.</p> <p>Evans, Stephen and Zachary Manis. 종교 철학: 기독교 신앙의 철학적 조명. 정승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6.</p> <p>이현모 외 5인. 와이 미션?: 하나님을 기쁘게, 열방이 주를 기뻐하게. 서울: 두란노서원, 2015.</p> <p>Komatose, Max et al. <i>Ensemble Acting in the Off-Loop Theaters of Chicago</i>. Toledo: WrightSmart Press, 1995.</p>
편집자 혹은 번역자	<p>김승혜 편. 종교학의 이해: 종교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왜관: 분도출판사, 1986.</p> <p>Viney, Donald Wayne and Jincheol O, eds. <i>Creative Experiencing: A Philosophy of Freedom</i>. New York: SUNY Press, 2011.</p> <p>Banks, Robert. 바울의 공동체 사상. 장동수 역. 서울: IVP, 2007.</p> <p>McBeth, Leon. 침례교회의 역사와 유산. 김용국 외 역.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13.</p> <p>Allen, David. 프리칭틀스. 임도균 외 번역. 서울: 디사이플, 2019.</p> <p>Käsemann, Ernst. <i>On Being a Disciple of the Crucified Nazarene</i>. Translated by Roy A. Harrisville. Grand Rapids: Eerdmans, 2010.</p>
출판지 불명	<p>김채은. 사색의 길목에서. 출판지 불명: 출판사 불명, 출판연도 불명.</p> <p>Singer, Isaac Bashevis. <i>Writers at Work</i>. n.p.: n.p., n.d.</p>
판수	<p>Robert, Atchley, ed. <i>Social Forces and Aging: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i>. 4th ed.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 1985.</p> <p>김선배. 신약성경 올레길. 개정판. 서울: 요단출판사, 2016.</p>

단행본	각주
편집된 책의 일부	<p>16) 김종길, “동성애와 대중문화: 동성애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동성에 성경에서 답을 찾다, 침례신학대학출판부 편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20), 242.</p> <p>17) 양병모, “목회자의 소명,” 복음주의 목회학,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편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110.</p> <p>18) Youngju Kwon, “Charting the (Un)charted: Gospels as Ancient Biographies and Their (Un)explored Implications,” <i>Biographies and Jesus: What Does It Mean for the Gospels to Be Biographies?</i>, ed. Craig S. Keener and Edward T. Wright (Lexington: Emeth Press, 2016), 67-72.</p>
총서, 편집류, 시리즈물	<p>19) Will Durant and Ariel Durant, <i>The Age of Napoleon</i>, vol.11 of <i>The Story of Civilization</i>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75), 394-97.</p> <p>20) 박형룡, 구원론, 교의신학 제5권 (서울: 은성문화사, 1972), 100.</p> <p>21) Chris Keith, <i>Jesus' Literacy: Scribal Culture and the Teacher from Galilee</i>, <i>Library of New Testament Studies</i> 8 (New York: Bloomsbury, 2011), 135.</p> <p>22) Douglas J. Moo, <i>The Epistle to the Romans</i>,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6), 1127-28.</p> <p>23) 장춘식, 에스라 느헤미야, 성서주석 14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127-36.</p> <p>24) 조재천, 히브리서, 그리스도인을 위한 통독 주석 시리즈 (서울: 흥성사, 2016), 178-79.</p>
악보	<p>25) Franz Schubert, “방랑자”(Der Wanderer) (서울: 음악춘추사, 1990), 32-4 마디.</p>
재인용	<p>26) Eugene Cumming, <i>Growing Old</i> (New York: Basic Books, 1961), 123, 이기옥, 노년을 멋지게 (서울: 정우사, 1992), 116에서 재인용.</p>

단행본	참고자료
편집된 책의 일부	<p>김종걸. “동성애와 대중문화: 동성애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동성애 성경에서 답을 찾다. 침례신학대학출판부 편.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20, 223-53.</p> <p>양병모. “목회자의 소명.” 복음주의 목회학.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편.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93-120.</p> <p>Kwon, Youngju. “Charting the (Un)charted: Gospels as Ancient Biographies and Their (Un)explored Implications.” <i>Biographies and Jesus: What Does It Mean for the Gospels to Be Biographies?</i> Edited by Craig S. Keener and Edward T. Wright. Lexington: Emeth Press, 2016), 59-76.</p>
총서, 전집류, 시리즈물	<p>Durant, Will and Ariel Durant. <i>The Age of Napoleon</i>. Vol. 11 of <i>The Story of Civilization</i>.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75.</p> <p>박형룡. 구원론. 교의신학 제5권. 서울: 은성문화사, 1972.</p> <p>Keith, Chris. <i>Jesus' Literacy: Scribal Culture and the Teacher from Galilee</i>. Library of New Testament Studies 8. New York: Bloomsbury, 2011.</p> <p>Moo, Douglas J. <i>The Epistle to the Romans</i>.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6.</p> <p>장춘식. 에스라 느헤미야. 성서주석 14.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p> <p>조재천. 히브리서. 그리스도인을 위한 통독 주석 시리즈. 서울: 홍성사, 2016.</p>
악보	<p>Schubert, Franz. “방랑자”(Der Wanderer). 서울: 음악춘추사, 1990.</p>
재인용	<p>이기옥. 노년을 멋지게. 서울: 정우사, 1992. (재인용한 자료는 실제 사용한 자료만을 수록한다.)</p>

정기간행물	각주
학술지	<p>1) 김은수, “에큐메니칼 선교와 복음주의 선교: 1973년 방콕 세계선교대회와 1974년 로잔 국제복음화대회를 중심으로,” 신학사상 98집 (1997 가을): 43-45.</p> <p>2) 사미자, “회심경험과 종교적 성장의 상관성에 관한 한 연구,” 장신논단 5집 (1989): 252.</p> <p>3) D. W. Harding, “Regulated Hatred: An Aspect of the Work of Jane Austen,” <i>Scrutiny</i> vol. 8 (March 1940): 340-41.</p> <p>4) Walter Principe, “Toward Defining Spirituality,” <i>Studies in Religion</i> vol. 12, no. 2 (1983): 127-29.</p> <p>5) Sandra M. Schneiders, “Theology and Spirituality: Strangers, Rivals, or Partners,” <i>Horizons</i> vol. 13, no. 2 (1986): 253.</p> <p>6) Raymond Bellour, “Alternation, Segmentation, Hypnosis: Interview with Raymond Bellour,” Interview by Janet Bergstrom. <i>Camera Obscura</i> nos. 3-4 (summer 1979): 85.</p>
잡지	<p>7) 김종열, “한국 교회의 귀족화 현상,” 기독교사상, 1973년 6월, 45-46.</p> <p>8) 박홍수, “통일논의 신중하게 하자,” 주간조선, 1988년 7월 31일, 24-25.</p>
신문	<p>9) 한국일보, 1999년 12월 20일, 5면.</p> <p>10) 장택선, “유아교육이 바뀌고 있다,” 교육신보, 1999년 11월 10일, 10면.</p> <p>11) Michael Norman, “The Once-Simple Folk Tale Analyzed by Academe,” <i>New York Times</i>, 5 March 1984, sec. 1A, 3.</p> <p>12) <i>Pioneer Times</i> (Houlton, Maine), 25 March 1985; <i>Le Monde</i> (Paris), 8 August 1997.</p> <p>13) <i>Frankfurter Zeitung</i>, 9 September 1999; <i>Times</i> (London), 1 January 2000.</p>

정기간행물	참고자료
학술지	<p>김은수. “에큐메니칼 선교와 복음주의 선교: 1973년 방콕 세계선교대회와 1974년 로잔 국제복음화대회를 중심으로.” 신학사상 98집 (1997 가을): 43-70.</p> <p>사미자. “회심경험과 종교적 성장의 상관성에 관한 한 연구.” 장신논단 5집 (1989): 252-79.</p> <p>Harding, D. W. “Regulated Hatred: An Aspect of the Work of Jane Austen.” <i>Scrutiny</i> vol. 8 (March 1940): 340-55.</p> <p>Principe, Walter. “Toward Defining Spirituality.” <i>Studies in Religion</i> vol. 12, no. 2 (1983): 127-41.</p> <p>Schneiders, Sandra M. “Theology and Spirituality: Strangers, Rivals, or Partners.” <i>Horizons</i> vol. 13, no. 2 (1986): 253-74.</p> <p>Bellour, Raymond. “Alternation, Segmentation, Hypnosis: Interview with Raymond Bellour.” Interview by Janet Bergstrom. <i>Camera Obscura</i> nos. 3-4 (summer 1979): 85-98.</p>
잡지	<p>김종열. “한국 교회의 귀족화 현상.” 기독교사상. 1973년 6월, 45-56.</p> <p>박홍수. “통일논의 신중하게 하자.” 주간조선. 1988년 7월 31일, 24-25.</p>
신문	<p>한국일보. 1999년 12월 20일.</p> <p>교육신보. 1999년 11월 10일.</p> <p><i>New York Times</i>. 5 March 1984.</p> <p><i>Pioneer Times</i> (Houlton, Maine). 25 March 1985.</p> <p><i>Frankfurter Zeitung</i>. 9 September 1999.</p>

미간행물	각주
학위논문	<p>1) 공도원, “교회 성장에 있어서 제자훈련이 미치는 영향 고찰”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93), 23.</p> <p>2) Gilberto Artioli, “Structural Studies of the Water Molecules and Hydrogen Bonding in Zeolites” (Ph.D. diss., University of Chicago, 1985), 56.</p>
면담	<p>3) 남용희, 저자와의 면담, 1997년 7월 15일, 올릉도 서달교회당, 녹음파일 34-A.</p> <p>4) Merle A. Roemer, interview by Author, 26 July 1973, Millington, Md., Tape Recording.</p>
편지	<p>5) Percy Bysshe Shelley, Padua, to Mary Wollstonecraft Shelley, Este, 22 September 1818, transcript in the hand of Mary Wollstonecraft Shelley, Special Collections, Joseph Regenstein Library,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p> <p>6) 강만희, 1985년 9월 12일, Columbus, Ohio에서 London으로 Malcom Frager에게 보낸 편지, New York 주 Rochester에 위치한 University of Rochester 내 Eastman School of Music Library의 Malcom Frager Collection에 소장.</p>
자필기록	<p>7) Robert Craft. “A Catalog of Manuscripts and Documents [of] the Original Works of Igor Stravinsky, 1970(?)” TMs (photocopy), 136, Special Collections, Joseph Regenstein Library,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p>
악보	<p>8) Wolfgang Amadeus Mozart, <i>Don Giovanni</i>, libretto by Lorenzo da Ponte, English version by W. H. Auden and Chester Kallman (New York: G. Schirmer, 1961), 55.</p>

미간행물	참고자료
학위논문	<p>공도원. “교회 성장에 있어서 제자훈련이 미치는 영향 고찰.”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93.</p> <p>Artioli, Gilberto. “Structural Studies of the Water Molecules and Hydrogen Bonding in Zeolites.” Ph.D. diss., University of Chicago, 1985.</p>
면담	<p>남용희. 저자와의 면담. 1997년 7월 15일. 울릉도 서달교회당. 녹음파일 34-A.</p> <p>Roemer, Merle A. Interview by Author. 26 July 1973. Millington, Md. Tape Recording.</p>
편지	<p>Shelley, Percy Bysshe. Padua, to Mary Wollstonecraft Shelley, Este. 22 September 1818. Transcript in the hand of Mary Wollstonecraft Shelley. Special Collections, Joseph Regenstein Library,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p> <p>강만희. 1988년 9월 12일. Ohio 주 Columbus에서 London으로 Malcom Frager에게 보낸 편지. New York 주 Rochester에 위치한 University of Rochester 내 Eastman School of Music Library의 Malcom Frager Collection에 소장.</p>
자필기록	<p>Craft, Robert. “A Catalog of Manuscripts and Documents [of] the Original Works of Igor Stravinsky, 1970(?)” TMs (photocopy). Special Collections, Joseph Regenstein Library,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p>
악보	<p>Mozart, Wolfgang Amadeus. <i>Don Giovanni</i>. Libretto by Lorenzo da Ponte, English version by W. H. Auden and Chester Kallman. New York: G. Schirmer, 1961.</p>

기타자료	각주
온라인 자료	1) 김상구, “탈무드란?” [온라인 자료] http://kcm.co.kr/mishnah/tm01.html , 2000년 1월 10일 접속.
온라인 학술지	2) Joanne C. Baker and Richard W. Hunstead, “Revealing the Effects of Orientation in Composite Quasar Spectra.” <i>Astrophysical Journal</i> [온라인 학술지] (October 1995): 220-30, http://www.aas.org/ApJ/v452n2/5309/ 5309.html, 1995년 9월 29일 접속.
전문기관 자료	3) D. Beevis, “Ergonomist’s Role in the Weapon System Development Process in Canada.” Downsview, Ont.: Defence and Civil Institute of Environmental Medicine, 1983. NTIS, AD-A145 5713/2. Microfiche. 4) Barbara Robson, <i>Tanzania: Country Status Report</i> . Washington, D.C.: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Language/Area Reference Center, 1984. ERIC, ED 248700. 5) Linda B. Rudolf, “The Impact of the Divorce Process on the Family.” Paper presented at the twenty-ninth annual meeting of the South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23-26 March 1983. EDRS, ED 233277. Microfilm.
디스켓	6) Richard D. Lanham, <i>The Electronic Word: Democracy, Technology, and the Arts</i> [디스켓].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온라인 단행본	7) William J. Mitchell, <i>City of Bits: Space, Place, and the Infobahn</i> [온라인 단행본] Cambridge, Mass.: MIT Press, 1995. http://www.mitpress.mit.edu/80/City_of_Bits/Pulling_Glass/index.html , 1995년 9월 29일 접속.
CD-Rom 자료	8) Robin Toner, “Senate Approves Welfare Plan That Would End Aid Guarantee.” <i>New York Times</i> , 20 September 1995, national ed., A1. <i>New York Times OnDisc</i> [CD-ROM]. UMI-Proquest, December 1995.
연설	9) Eulogy of Charles V in Latin, apparently written at the monastery of St. Just, Spain, [ca. 1500], Special Collections, Joseph Regenstein Library,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
레코드, 카세트, CD, LD	10) Johann Sebastian Bach, <i>The Brandenburg Concertos</i> , Paillard Chamber Orchestra, (RCA CRL2-5801), 1987.
연주	11) Georg Solti, conductor, <i>Brandenburg Concerto No. 1</i> by Johann Sebastian Bach, BWV 1046, Chicago Symphony Orchestra Concert, Chicago, 2 June 1985.
미술작품	12) Jackson Pollock, <i>Reflection of the Big Dipper</i> , oil on canvas, 1946, Stedelijk Museum, Amsterdam.
영화	13) <i>Itzak Perman: In My Case Music</i> , Prod. and dir. by Tony DeNonno, 10 min., Denonno Pix, 1985, videocassette.

기타자료	참고자료
온라인 자료	김상구. “탈무드란?” [온라인 자료] http://kcm.co.kr/mishnah/tm01.html . 2000년 1월 10일 접속.
온라인 학술지	Baker, Joanne C. Baker and Richard W. Hunstead. “Revealing the Effects of Orientation in Composite Quasar Spectra.” <i>Astrophysical Journal</i> [온라인 학술지] (October 1995): 220-30. http://www.aas.org/Ap/v452n2/5309/5309.html . 1995년 9월 29일 접속.
전문기관 자료	Beevis, D. “Ergonomist's Role in the Weapon System Development Process in Canada.” Downsview, Ont.: Defence and Civil Institute of Environmental Medicine, 1983. NTIS, AD-A145 5713/2. Microfiche. Robson, Barbara. <i>Tanzania: Country Status Report</i> . Washington, D.C.: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Language/Area Reference Center, 1984. ERIC, ED 248700. Rudolf, Linda B. “The Impact of the Divorce Process on the Family.” Paper presented at the twenty-ninth annual meeting of the South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23-26 March 1983. EDRS, ED 233277. Microfilm.
디스켓	Lanham, Richard D. <i>The Electronic Word: Democracy, Technology, and the Arts</i> [디스켓].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온라인 단행본	Mitchell, William J. <i>City of Bits: Space, Place, and the Infobahn</i> [온라인 단행본] Cambridge, Mass.: MIT Press, 1995. http://www.mitpress.mit.edu:80/City_Pulling_Glass/of_Bits/index.html . 1995년 9월 29일 접속.
CD-Rom 자료	Toner, Robin. “Senate Approves Welfare Plan That Would End Aid Guarantee.” <i>New York Times</i> , 20 September 1995, national ed., A1. <i>New York Times Ondisc</i> [CD-ROM]. UMI-Proquest, December 1995.
연설	Eulogy of Charles V. In Latin, apparently written at the monastery of St. Just, Spain, [ca. 1500]. Special Collections, Joseph Regenstein Library,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
레코드, 카세트, CD, LD	Bach, Johann Sebastian. <i>The Brandenburg Concertos</i> . Paillard Chamber Orchestra. RCA CRL2-5801, 1987. CD.
연주	Solti, Georg, conductor. <i>Brandenburg Concerto No. 1</i> by Johann Sebastian Bach, BWV 1046. Chicago Symphony Orchestra Concert, Chicago, 2 June 1985.
미술작품	(미술작품은 참고자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영화	Perlman, Itzak. <i>Itzak Perman: In My Case Music</i> . Produced and directed by Tony DeNonno. 10 min. Denonno Pix. 1985. Videocassette.

<부록 13>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이하 ‘본 대학교’)에 속한 연구자의 연구열을 고취하면서,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개정 2021.3.1.).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대학교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교직원과 연구 인력 및 학생에게 적용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지침에서 정하는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①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② 타인의 저작물에서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③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④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 다음의 각 호와 같이 부당하게 저자 표시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②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③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8.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4조(예외)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 연구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과실
2. 기재상의 명백한 실수
3. 데이터 및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과 판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작위나 부작위

제2장 연구윤리 검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명칭) 대학교는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연구윤리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제6조(구성)

1.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1명, 임명직 위원 4명, 해당 학문 분야 외부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한다.
 - ① 7명의 위원 중 4명은 해당 학문 분야 전문가이어야 한다.
 - ② 외부인 2명 중 1명은 해당 학문 분야 전문가이어야 한다.
 - ③ 필요할 경우 7명의 위원 중, 내부 위원수를 줄이고 외부 위원수를 늘릴 수 있다.
2. 당연직 위원은 교무연구지원처장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무연구지원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6.22.).
3. 단,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안에 위원이 될 수 없다.
 -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 ④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자
4. 위원회는 사안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해당 부서의 직원 한 명을 간사로 둔다.
 5. 위원 중 일부에 대해 공정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보자나 피조사자는 1회에 한하여 3분의 1미만의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것을 수용할 것인지를 해당 위원을 제외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위원장)

1.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연구지원처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개정 2020.6.22.).
2. 위원장이 위 6조 3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총장이 해당 사안에 대한 위원장을 임명한다.

제8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안 최종판정 때까지로 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를 관한 사항
4.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윤리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에 사안을 이첩하기 전까지 필요한 모든 사항
6.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

제10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안과 관련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권한)

1.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1. 위원장, 위원,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감정인, 참고인과 관계 교직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조사결과가 확정되기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위원장, 위원,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감정인, 참고인과 관계 교직원의 비밀유지 의무는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동일하다. 단, 위원장은 국가기관 또는 총장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에게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미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3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3장 연구 진실성 검증

제15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실명으로 제보하여야 한다. 익명의 제보는 접수하지 않는다.
2. 부정행위 제보 접수는 교무연구지원처에서 관장한다(개정 2020.6.22.).

제16조(진실성 검증 절차)

1.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단

계로 진행한다.

2.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7조(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교무연구지원처장의 주관 아래 관련 전공 교수 두 명의 도움을 받아 실시한다(개정 2020.6.22.).
2. 예비조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3.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4.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① 제보내용이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제18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1. 예비조사의 결과는 예비조사 종료 후 총장의 승인이 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내용

-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 ③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④ 기타 관련 증빙 자료

제19조(본조사)

1. 본조사는 총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또는
이의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연구윤리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2.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
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
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0조(본조사 결과의 보고)

1. 위원회는 조사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
에게 제출한다.
2. 위원회는 총장이 결과보고서를 승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단, 제보자
와 피조사자에게는 아래 결과보고서 내용 중 ①항, ②항,
③항의 내용만 통보한다.
3.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 내용
 -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 ③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 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 ④ 관련 증거 및 증인
- ⑤ 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이의가 제기될 경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제21조(징계조치 권고)

1. 위원회는 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총장에게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2.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한다.

제22조(판정)

1. 총장은 위원회의 조사결과 판정을 최종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이의신청)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한 기록은 교무연구지원처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6.22.).
2.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5조(준용) 연구윤리 검증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국가의 연구윤리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 딤후 3:14-15 -

논문작성법

지 은 이	논문양식연구위원회 편
발 행 인	김선배
초 판 발 행	2005년 9월 15일
개정증보발행	2016년 11월 30일
개정증보2판발행	2021년 7월 15일
등 록 번 호	출판 제6호(1979. 9. 22)
발 행 처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유성대로 190 (34098)
전 화	(042)828-3257
팩 스	(042)828-3256
홈 페이지	http://www.kbtus.ac.kr